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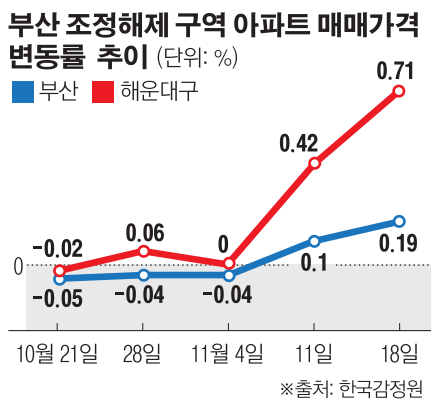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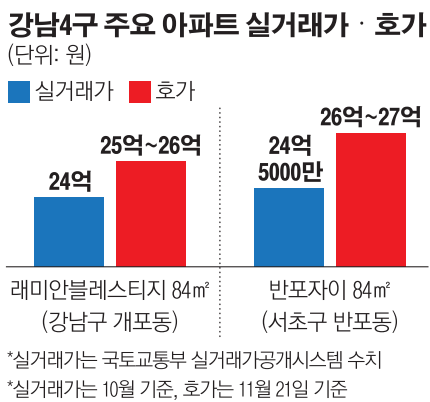
한·일 지소미아 사실상 종료 4



정성인 회장 “타다, 사법부 신중한 판단을” 21

“정부만 나서면 집값 오른다”...규제의 역설

서울 상한제 단지 호가 1억 '썩음' 조정해제 부산 상승지역 확산
文대통령 “시장 안정” 자신했지만 전국 매매가 전주보다 0.02%P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2주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집값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상한제 지역으로 분류된 서울 8개 구(강남·서초·송파·강동·마포·용산·성동·영등포구) 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일부 아파트 단지는 1억 원 이상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지역 집값도 급등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레이안블레스티지 전용 84㎡는 25억~26억 원을 호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지난달 매매가 24억 원보다 무려 1억 원 이상 오른 수치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도 지난달 24억5000만 원(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에 거래됐으나 이달 들어서 26억~27억 원으로 호가가 올랐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움 전용 84㎡의 호가

역시 최근 19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거래된 18억 원보다 1억 원 오른 것이다.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한 지 열흘 넘게 시간이 흘렀지만 주택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상승세다. 정부는 이달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서울 8개 구, 27개 동을 핀셋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봐도 서울 집값이 진정된 기미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이달 1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0.08%로 전주보다 0.02%포인트(P) 올랐다. 서울도 전주보다 0.01%P 오른 0.10%로 집계됐다. 강북은 0.06%, 강남은 0.12% 각각 상승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구)는 전주보다 0.01%P 오른 0.14%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은 매물 부족,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및 지역(단지)별 겹 매우기 등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추가 지정 가능성으로 일부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커졌으나 유예기간(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부어로 아직 제도 시행의 제검도가 낮다는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에서는 규제 해제와 동시에 집값이 오르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면에 계속 서지희 기자 jhsseo@

케이뱅크 자본확충 길 열렸다

정무위, 인터넷뱅크·금소법 처리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회를 열어 12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인터넷은행법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에서 '금융관련법' 외에 다른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회생과 직결된 법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자본금 부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대주주가 되려면 KT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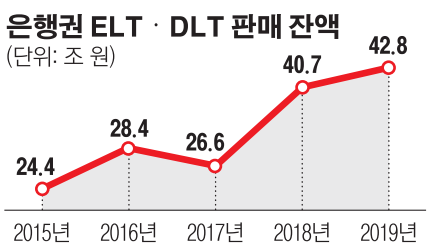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오랜 진통 끝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회사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또 소비자 보호가 미흡할 때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 법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번번이 시한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DLF 손실 사태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화성국제테마파크 본궤도 올랐다
홍남기(왼쪽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명(맨 왼쪽) 경기도지사, 정용진(왼쪽 두 번째) 신세계 그룹 부회장 등이 21일 경기 화성시 국제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테마파크 조감도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다. 2026년 1단계 오픈과 2031년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화성국제테마파크에는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월드', 휴양위 테마파크 '피사픽오션세이', 공통테마 '주라기월드', 키즈파크 '브릭&토이 킹덤' 등 4가지 콘셉트의 테마파크와 호텔, 전문쇼핑몰, 골프장 등 세계적 수준의 복합 리조트형 테마파크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4면 신태현 기자 holjjak@

DLF사태 여파 '43兆 ELT' 은행장구 판매 금지 은행 '신탁사업부' 통폐합 추진

시중銀 “공모 신탁 허용” 건의
시중은행이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신탁사업부를 자산관리(WM)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신탁 상품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신탁 상품 규제안을 발표하자 은행권은 이에 반발, 신탁사업부를 조정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을 사모로 분류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면서도 정부의 강행 의지가 큰 만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미 일부 시중은행은 신탁사업부와 WM 조직을 통합하는 등 관련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4일 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신탁 상품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신탁은 공모펀드 수준



의 규제를 받고 있었는데 고난도 사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은행은 추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 ELS를 펀드로 팔면 ELF이고, 신탁으로 거래하면 추가연계신탁(ELT)이 된다. ELS는 상품 구조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를 웃돌기 때문에 ELS를 편입한 신탁(ELT) 역시 고난도 상품에 포함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뜻대로 ELT 판매 제한이 가시화된다면 은행의 전체 신탁상품 중 특정금전신탁, 특히 ELS를 편입한 상품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관련 조직의 개편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8면에 계속 김범근 기자 nova@

해양플랜트 수주 가뭄...현대중, 佛법인 결국 청산

2014년부터 4년간 일감 못따내 유가하락에 추가 발주도 난항 3분기 211억 영업손실 적자 지속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공사를 지원해왔던 프랑스 법인이 설립 14년 만에 문을 닫았다. 수년간 업계를 짓누른 해양 프로젝트 수주 가뭄으로 '유지' 보다는 '청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현대중공업그룹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5월 프랑스 법인인 '현대중공업 프랑 SAS'의 청산을 결정하고 사업을 접었다.
현대중공업은 2005년 7월 프랑스 메이저 석유기업 '토탈'로부터 13억 달러(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FPSO(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를 수주하면서 선주사의 요청으로 프랑스 법인을 설립했다.
현지 법인을 통해 공사 진행 및 지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실제 현대

중공업은 그 이후에도 3년간 토탈로부터 미얀마 야다나 플랫폼 및 약포 FPSO 공사를 포함해 5개 공사를 연속 수주하며 탄탄한 신뢰감도 쌓고 현지 법인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후 토탈이 발주한 세계에서 가장 큰 30억 달러 규모의 '에지나 FPSO' 수주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삼성중공업이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며 2013년 최종 승자가 됐다.
또 저유가가 본격화한 2014년부터는 해양플랜트 수주 가뭄으로 조선업계 전체가 일감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
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양플랜트 사업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글로벌 석유업체들이 발주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진 다.
게다가 중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 대비 높은 인건비도 수주 가뭄에 한몫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 설비 수주 이후 4년간

일감을 따내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멕시코만 일대 원유 개발사업인 '킹스 키 프로젝트'에 들어갈 5130억 원 규모의 부유식 원유생산 설비를 따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해양플랜트 일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유휴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3분기에는 오랜 기간 해양플랜트 부문 물량 감소에 따른 비용 부담 지속으로 21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이 같은 흐름은 현대중공업 프랑스 법인 청산으로 이어졌다. 토탈이 과거에 발주한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됐을 뿐 아니라 추가 발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공사가 없어 법인의 존재 이유도 없어졌다”고 청산 배경을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오너 중심 지배구조 毒 됐나... 김앤장, 週 52시간 도입 나홀로 '삐걱'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내년 1월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제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수적인데, 내부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을 제외한 6대 로펌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재량근로제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하며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근로형태다. 변호사들은 도급 형태의 업무 방식과 잦은 외근으로 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형태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힘들다. 대형 로펌들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특성상 재량근로제를 통해 주

젊은 변호사들 요구사항 많아 재량근로제 도입 내부 합의 난항 타 로펌은 작년부터 제도 시행 "내년 1월 시행 맞춰 협의 진행"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은 1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시행 중이다. 화우는 지난해 7월, 바른과 올촌은 각각 지난해 11월에 도입했다. 세종은 4월부터 재량근로제를 적용했다. 이들 로펌은 소속 변호사에게 업무의 수행 방법 및 시간 배분 결정을 위임하고, 다른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은 시간 외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52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들 로펌은 지난해 각각 테스코프스(TF)팀을 꾸려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합

법무법인	시행 시기	인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미도입	약 3000명
법무법인 태평양	2019년 1월	약 1200명
법무법인 광장	2019년 1월	약 1170명
법무법인 화우	2018년 7월	약 700명
법무법인 바른	2018년 11월	약 400명
법무법인 올촌	2018년 11월	약 750명
법무법인 세종	2019년 4월	약 770명

※출처: 각 로펌

의를 이뤄냈다. 팀별로 구성된 임시의회의에서 동의한 내용을 어쏘(Associate)변호사와 파트너변호사 대표를 선정해 회사와 합의하는 등 기업의 임급 및 단체협상과 비슷한 구조로 진행했다.

반면 김앤장은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한 협의는 시작했지만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대형 로펌들이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가 오히려 독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평소 의사결정 구조가 일원화되다 보니 전체 구성원 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김앤장은 어썬 변호사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협의가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김앤장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다른 지배구조가 어떻게 작용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재량근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출퇴근 재량, 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는 전보다 눈치를 안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 업무량이 줄지는 않는다"며 "어썬 변호사들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김중용 기자 deep@

정의석 "빅스비, 생태계 확장... 전 세계 1.6억대 기기 연동"

빅스비 개발자데이 2019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플랫폼인 빅스비의 생태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빅스비가 도입된 가전 수가 1억 대를 넘을 뿐만 아니라, 빅스비에서 콘텐츠를 고안하는 개발자 수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빅스비의 이용성을 높일 수 있는 AI 스피커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정의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소프트웨어&AI 총괄 부사장은 2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빅스비 개발자 데이 2019'에서 "빅스비는 TV, 냉장고 등 전 세계 1억6000만 대 디바이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빅스비는) 연간 5억 대가 판매되고 있는 삼성

콘텐츠 개발자 수 2배 증가 지원 언어도 8개로 늘어 AI 스피커 '갤럭시 홈 미니' 공개 "8년 전 선풍기까지 제어"의 다양한 디바이스에 연동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스비에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지난 6개월간 빅스비 개발자 커뮤니티에 등록된 개발자 수는 (이전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났다"며 "빅스비 개발자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가 성장의 주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어, 미국 영어, 영국 영어, 중국어 등



정의석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이 21일 오전 '빅스비 개발자 데이 2019'에 참석해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빅스비가 지원하는 언어 또한 8개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빅스비를 활용하는 개발자들의 편의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달 미국에서 열린 'SDC(삼성개발자콘퍼런스) 2019'에서 빅스비 템플릿을 공개한 바 있다. 빅스비 템플릿은 복잡한 코딩 작업 없이도 누구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의 템플릿을 제공한다.

정 부사장은 "이미 인텔리전스 시대가 왔다"며 "빅스비는 사용자들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AI 스피커인 '갤럭시 홈 미니'를 선보였다. 제조사, 출시 시기에 상관없이 어떤 가전제품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가 이지수 무선사업부 AI팀 상

무는 "스피커 개발 과정에 고민이 있었다"며 "어떤 가정에 가보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볼 수 있다. 집에 있는 모든 가전이 삼성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갤럭시 홈 미니에 리모컨 적외선 송신기를 적용했다. 리모컨 신호를 통해 어떤 제품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며 "8년 된 선풍기도 AI 가전으로 바뀐다"고 덧붙였다.

이 상무는 "(갤럭시 홈 미니는) 최근 진행한 베타 테스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향후 갤럭시 홈 미니를 통해 빅스비의 가정 내 점유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사장은 갤럭시 홈 미니의 구체적인 출시 시기에 대해 "작년 9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출시를 준비해왔으며 수개월 내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 공개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깨끗한 숨 따뜻한 심 행복한 삶

깨끗한 숨을 쉴 수 있는 청정 에너지
따뜻한 심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에너지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갑니다.

- 개별난방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9.2%감소
- 개별난방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3%감소
- 황산화물질 배출 저감 청정기체 연료 전환
- 대기오염 방지시설 확충

한국지역난방공사
KOREA DISTRICT HEATING CORP.

“경제 예측 안돼”... 올해 100곳 중 4곳만 신규투자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수출 규제 국 내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규 시설 투자에 나선 상장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수출 감소와 경기둔화로 상장사들의 공장 신축 및 생산시설 확보 등 신규 시설·설비투자가 크게 줄었다. 올초 이후 현재 (20일 기준)까지 총 43조7667억 원 규모의 시설투자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47조2565억 원)과 비교하면 7% 감소한 수치다.

올해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전체 상장사 중 3.94%(코스피 4.92%, 코스닥 3.29%)에 불과하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48개사가 공장 증축 등 신규 시설 증축에 나섰다지만 올해는 44개사로 소폭 줄었다. 투자 금액도 1조947억 원에서 1조943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코스피 기업은 28개사에서 44개사로 늘었지만 규모는 46조1617억 원에서 42조6724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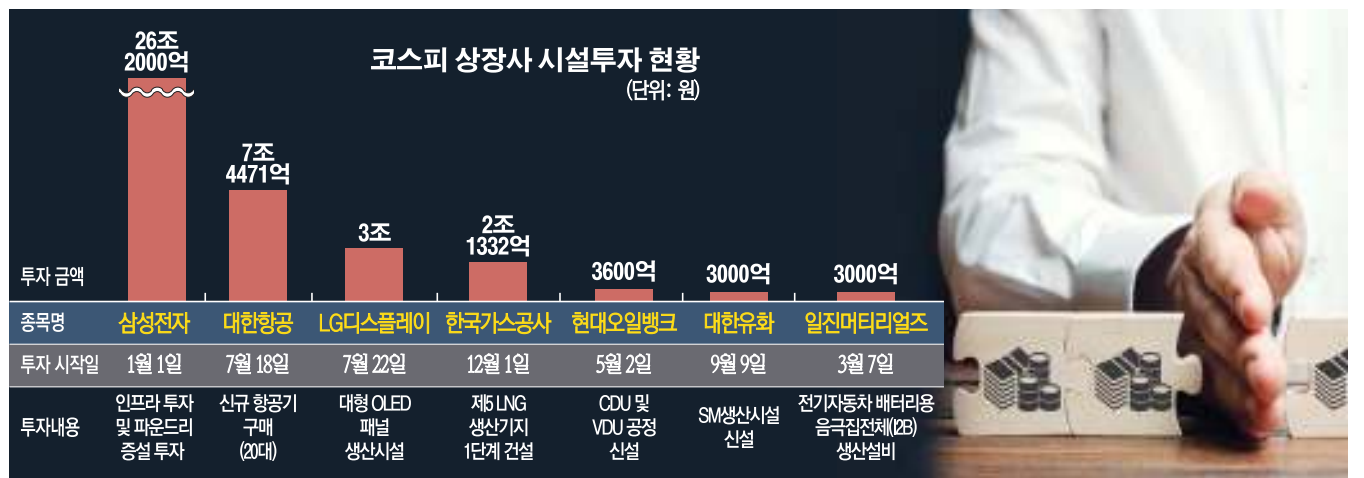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설비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이 올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급감했다”며 “추가적인 증설 유인이 전혀 없는데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등까지 겹치며 예정했던 투자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무역분쟁 장기화·수출악재로 공장신축 등 설비투자 7% 감소 코스피보다 코스닥서 두드러져 “반도체 업황 따라 회복 가능성”

자기자본의 절반 이상을 시설 확장에 쏟아붓는 ‘공격적 투자’도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시설투자 금액이 자사 자기자본 대비 평균 82.89%에 달했지만 올해는 30.62%로 크게 줄었다. 자기자본 대비 투자규모가 높은 곳은 대한항공(226%), 네패스(110.14%), 아이큐어(98.98%), 한익스프레스(89.44%), 휴마시스(78.1%), 필옵틱스(73.29%), 이연제약(72.84%)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문물량 및 수요 증가로 신규 시설을 지은 곳은 LG이노텍, LS전선아시아, 대한해운, 메카로, 보광산업, 삼성전자, 안트로젠, 에이티세미콘, 엘앤에프, 포스코케미칼, 한국항공우주, 현대상선, 메카로, 보광산업, 크린앤사이언스 등 16개사(코스피, 코스닥 각각 8개사)에 불과하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연구소 신설과 생산라인 증설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많았다. 특히 삼성전자는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메모리 첨단공정 전환, 인프라 투자 및 파운드리 증설투자를 목적으로



26조2000억 원을 투자했다. 전체 투자금액 중 59.86%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28조 원(60.5%)과 비교하면 감소했다.

이어 △대한항공 7조4471억 원(신규 항공기 20대 구매) △LG디스플레이 3조 원(대형 OLED 패널 생산시설 증축) △한국가스공사 2조1332억 원(제5 LNG생산기지 1단계 건설) △현대오일뱅크 3600억 원(CDU 및 VDU 공정 신설) △일진머티리얼즈 3000억 원(전기자동차 배터리용

음극집전체(I2B) 생산설비) △대한유화 3000억 원(SM생산시설 신설)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네패스 1803억 원(반도체용 생산설비 투자) △GRT 1219억 원(3공장 신규 건설) △엘앤에프 700억 원(2차전지 양극화물질 CAPA 증설) △제넥신 621억 원(미국 신사옥 및 R%D센터 건설) △셀트리온제약 582억 원(청주공장 내 PFS 라인 증설) △필옵틱스 486억 원(시설증설 통해 생산공간 확보) △노바

렉스 3979억 원(중장기 발전을 위한 신규 시설 투자)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동호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설비투자가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는데 글로벌 반도체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회복하면 신규 증설 압력도 커질 전망”이라며 “다만 미중 무역협상 문제가 다시 악화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설비투자가 회복된다면 잠재성장률의 하락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업종별 신규투자 살펴보니...

바이오 기업 시설투자 현황

투자 시작일	종목명	투자금액(원)	투자내용
3월 7일	삼성바이오리저스	1803억	R&D센터 신축
12월 13일	제넥신	621억	미국 신사옥 및 R&D센터 건설
11월 12일	하나제약	585억	하길 주사제 공장 신축
2월 25일	셀트리온제약	582억	청주공장 내 PFS 라인 증설
5월 9일	메디톡스	476억	오송 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3월 19일	종근당바이오	456억	오송공장 신설
2월 22일	에이치엘사이언스	190억	신규 원료공장 신설(국제기준의 GMP공장)

‘관망’하는 반도체, 18% 줄고 ‘촉망’받는 바이오, 300% 급증

올해 바이오 상장사의 신규 시설투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반도체는 감소해 업종별 희비가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바이오 상장사들의 신규 시설투자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1곳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투자규모도 2152억 원에서 8605억 원으로 299.78% 급증했다. 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 공시는 16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금액도 32조4904억 원에서 26조5199억 원으로 18.37% 감소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상장사 삼성바이오리저스가 1803억 원(R&D센터 신축), 이연제약이 1600억 원(cGMP 기준 케미칼 의약품 공장 신축), 대웅제약이 705억 원(마곡 C&D센터), 하나제약 585억 원(하길 주사제 공장 신축), 메디톡스 476억 원(오송 3공장 E동 생산라인 신축공사), 종근당바이오 456억 원(오송공장 신설) 등을 투자했다.

코스닥 기업 중에는 제넥신 621억 원(미국 신사옥 및 R&D센터 건설), 대성미생물 205억 원(동물용백신 공장 증개), 에이치엘사이언스 190억 원(신규 원료공장 신설), 아이큐어 171억 원(GMP 기준 화장품 공장 신

축), 휴마시스 111억 원(공장 신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면 반도체는 업종 불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상장사 중 시설투자를 늘린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이를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 중에는 티로보틱스, 테스나, 원팩, 에이티세미콘, 에스티아이, 아파홀딩스 등 코스닥 9개사만이 시설 증축 계획을 밝혔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비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시장전망 및 교역조건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로서는 신규투자 둔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이전 공장 증설(3조4855억 원)을 진행한 이후 올해는 늘리지 않았다.

한편 바이오 기업들의 시설투자 증가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신약개발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올림픽보다 큰 운동회

관객도 박수 소리도 작은 경기지만 어린 선수들의 각오는 올림픽만큼 큼니다

건강한 체력과 인성이 자라는 꿈나무 체육대회는 세상 가장 큰 운동회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험은 사람입니다

KYOBO 교보생명

교보생명인 꿈나무체육대회는 체육공무원발굴육성하기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임박 속 '방위비 협상' 등 후폭풍 우려

靑 NSC,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종료 시한까지 외교적 노력"
美상원,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청와대가 21일 오전 정의를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1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NSC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정례회의이지만 평소와 달리 오전에 소집됐다. 한미 간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22일 자정으로 임박한 시점에 열린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하고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

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까지 외교적 노력은 이어가되, 종료 이후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검토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상 종료로 가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후속 대응 방안이 논의된 셈이다. 특히 미국의 불만을 달랠 방법들이 주요 의제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행정부에 이어 의회까지 나서 지소미아 종료를 철저히 하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NSC가 열리던 시각 미 상원에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NSC는 전날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현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방미 성과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현중 차장은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핵안보국과 국방부 고위 인사들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 보복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종료 결정 유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안보상으로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일본의 태도는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 측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와 관련해 별도의 종료 선언을 하지 않고 '자연 소멸' 형식을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방위비 협상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정일환 기자 whan@

김정은 "한·아세안정상회의 갈 이유 못 찾아"

문 대통령 친서에 불참 통보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왔지만 '참석할 이유를 못 찾았다'며 거절했다.

21일 조선중앙통신은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라는 글에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어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

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면서 "우리는 남측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부산 방문과 관련한 경호와 의전 등 모든 영접 준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놓고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판문점과 평양, 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적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내내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다시 황교안 찾은 강기정 강기정(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단식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총선서 현역의원 절반 이상 교체"

3분의 1 이상 컷오프 방침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추진한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1일 한국당 총선거기획단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공천 방침을 발표했다.

총선거기획단은 "21대 총선에서 현역의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개혁공천을 하기로 했다"며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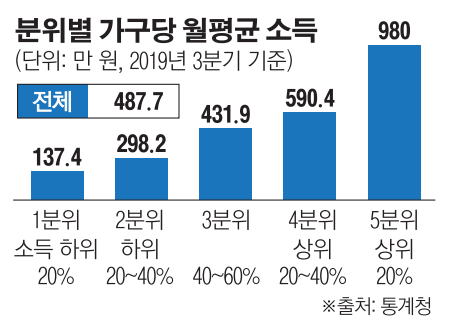
기획단은 이어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 세부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실천해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컷오프 비율을 33%로 정한 배경에 대해 박맹우 단장은 "2020 시대정신, 국민의 여망, 많은 국민이 쇄신과 혁신을 바라는 이 즈음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현역의원 50% 교체율을 말씀드렸다. 50%를 교체하기 위해 이 정도 컷오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영업 몰락...가계소득 최대폭 감소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

3~5분위 자영업 가구 일부
소득 감소로 1~2분위로 이동
월평균 사업소득 4.9% 감소



최근 가계동향은 '매출이 줄었지만 비용도 줄어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를 보는 듯하다. 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됐지만, 그 배경이 상위 분위 자영업 가구의 소득 감소라는 점에 있다.

21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3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2.7% 늘었으나, 이 중 사업소득은 4.9% 감소했다. 분위별로 1분위(하위 20%)와 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11.3%, 15.3% 늘었으나, 4분위와 5분위(상위 20%)의 사업소득은 각각 10.0%, 12.6% 줄었다. 3분위도 0.8% 줄며 감소로 꺾였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이 4.8%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3~5분위 자영업 가구의 일부가 사업소득 감소로 1~2분위로 이동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1분위의 근로자 가구는 최근 고용여건 개선으로 상위 분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1분위 근로소득이 6.5% 감소한 것도 근로자 가구가 상위 분위로 이탈하면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자영업률 악화로 1분위로 떨어진 가구가 있고, 고용은 양호한 모습을 보이니 떨어진

자영업자보다 (소득여건이) 나은 사람은 올라가는 것"이라며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 상황은 나아진 것이고, (고소득 자영업 가구는) 자영업률이 어려워지다 보니 (하위 분위로) 내려오면서 가구구성 변화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분위별 가구구성 변화는 1~2분위와 4~5분위에서 큰 폭으로 이뤄졌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분위는 자영업 가구가 포함된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각각 71.9%로 3.5%포인트(P), 43.3%로 1.8%P 확대된 반면, 4~5분위에선 27.9%로 5.1%P, 22.7%로 1.2%P 축소됐다. 3분위는 36.7%로 변동이 없었다. 결국 4~5분위의 근로자 외 가구가 3분위로 이동하고, 비슷한 규모의 근로자 외 가구가 3분위에서 1~2분위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률은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에서 부진이 두드러진다. 3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두 산업의 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5%, 2.6% 감소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홍남기 "화성 테마파크로 일자리 11만개 창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지금까지 없던 테마파크 조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화성 국제테마파크 개발에 대해 "약 1만5000명의 직접고용과 1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 70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송산그린단지 내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대상지에서 진행된 화성 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 상위 10개 테마파크그룹 방문객은 최초로 5억 명을 넘어섰다. 또 상위 25개 테마파크 방문객의 약 80%를 미국, 일본, 중국의 주요 테마파크가 차지

했다. 우리나라도 2012년과 2017년 두 차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을 시도했으나, 시행사 자금난으로 계획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해 2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테마파크 사업 재추진이 결정됐다. 수원원공사는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경기 화성시는 행정절차를 지원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9월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일 신안산선 테마파크역사 설치 방안이 확정됐다.

한편, 총 120만㎡ 규모의 테마파크는 주라지월드(공룡테마), 어드벤처월드(놀이 시설), 퍼시픽오딧세이(워터파크), 브릭&토이킹덤(키즈파크) 등으로 구성된다. 주변에는 4~6성급 호텔 5곳과 스타필드,

프리미엄아웃렛,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장이 참석했다. 신세계그룹에선 정용진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용진 부회장은 단순한 테마파크 개발에 그치지 않고 4차 산업 기술을 구현하는 복합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테마파크를 만들어 국가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이달 1~20일 수출 9.6% '뺏겨'

반도체 24%·선박 65% 감소

한국 수출이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7%를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은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10%에 육박하는 감소세를 보이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8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6%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15.5일로 같았다.

이달 역시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컸다.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23.6%), 선박(-65.3%) 등이 크게 감소했다. 석유제품(-3.4%), 무선통신기기(-

1.9%) 역시 부진했다. 반면 승용차(7.1%)와 가전제품(8.7%) 등의 수출은 늘었다. 지역 수출은 미국(0.5%), 중동(14.4%)은 늘었지만, 중국(-8.1%), 베트남(-4.7%), 유럽연합(-25.3%), 일본(-3.1%)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276억 달러)도 원유(-21.0%), 가스(-10.7%), 석유제품(-29.4%) 등을 중심으로 11.2%(34억8000만 달러) 줄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일본쌀이 좋다는 건 옛말... 명품 국산쌀이 '한수위'

농진청, 쌀 국산화 박차

우리나라 대표 쌀 생산지인 경기도 이천. 올해 경기도 이천에서는 뜻깊은 수확 행사가 열렸다. 바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고품질 벼인 '해들'의 첫 수확이 이뤄졌다.

이천의 대표 쌀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은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천 쌀에 일본 등에서 들여온 외래품종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거기가 '일본쌀 = 맛있는 쌀'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다.

실제로 일본 품종은 쌀 시장에서 이른바 '밥맛 좋은 쌀'로 여겨져 왔다. 1970년대 식량난 해소를 위해 통일벼를 보급했지만 밥맛이 떨어지면서 일본 품종이 맛있다는 인식이 생겼다. 고품종에 대한 요구가 생기면서 '고시히카리', '아키바레(추청)', '히토메보레' 등의 품종이 수입됐다.

22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전체 쌀 생산면적인 7만5700ha 가운데 약 10.3%에서 이들 일본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제빵과 기술 '독립' 움직임에 농업 분야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산을 뛰어넘는 고품질 벼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국산 품종을 사용해야 한다는 애국심 때문이 아닌 실제 품질면에서 앞서는 이유로 국산 고품

최고품질 벼 18종 개발·보급

첫 수확 '해들', 평가서 日 압도 재배 품종 1위~4위 모두 국산 외래종 종자·비축미 축소 방침

질 벼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 1위에서 4위까지인 '신동진', '삼광', '새일미', '새누리'는 모두 국산이다.

농진청은 쌀 시장개방을 대비해 2003년부터 품종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까지 최고품질 품종 18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중이다. 이들 최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2006년 0.6%에서 지난해에는 25.2%까지 비중을 높였다.

올해 첫 수확이 이뤄진 '해들'도 최고품질 벼를 목표로 탄생한 우리 쌀이다.

해들은 2016년 농진청이 이천시, 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로 2017년 개발한 조생종 최고품질 벼다. 육종가가 교배하고 농업인이 선발해 소비자 평가단이 결정했다. '해들'이라는 이름도 지역민들이 직접 선정했다. '벼를 키우는 해, 벼가 자라는 들'이라는 뜻이다.

밥맛에서도 일본 품종을 뛰어넘었다. 2017년 신품질선정위원회에서 뛰어난 밥



올가을 경기도 이천시 한 논에서 임금님표 이천쌀 '해들'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 농촌진흥청

맛과 재배 안정성을 인정받은 해들은 소비자 밥맛평가단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48%가 가장 맛있는 쌀로 손꼽혔다. 일본 품종인 고시히카리를 선택한 비중은 29%에 그쳤다.

특히 이천시는 국내 대표 쌀 브랜드인 '임금님표 이천쌀' 품종 교체를 위해 2021

년까지 조생종 재배 면적 1000ha에 '해들'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022년까지는 고시히카리를 대체하는 '해들', '추청'을 대신한 '알찬미' 등으로 임금님표 이천쌀의 원료 100%를 국

내품종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최고품질 쌀 생산을 지역 명품 브랜드로

도 육성한다. 지역별 토양과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벼 종자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쌀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중부 평야지역은 삼광벼와 참드림, 맛드림, 대보, 진광, 해들벼를 중점 보급하고 남부 평야지역엔 호풍벼, 영호진미, 미품, 예찬미를 일본품종의 대체품종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농진청은 올해 11개소 2755ha인 최고품질 거점단지를 2022년까지 35개소 7600ha까지 확대한다. 이런 노력을 통해 23% 수준인 최고품질 품종 보급률을 2027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농진청은 외래품종 종자 보급과 공공비축미 수매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특히 올해 2925톤에 달하는 외래품종 보급율을 2023년에는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

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원장은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품종에서 일본 품종인 추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인터뷰 김두호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

“식량은 무기...수출전용 쌀 개발 필요”

“재배기술 R&D 비중 늘려야 쌀 소비 급감... 가공산업 육성 스마트농업 위해 ICT 접목”

“식량이 부족해지면 국가와 정권의 존폐와도 연결됩니다. 식량 생산성 유지를 위해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김두호(사진)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30년 넘게 농업 R&D 정책 분야에서 일한 전문가다. 연구실과 농업 현장을 직접 발로 뛰었고, 이를 정책과 연결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그는 식량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세계 곡물과동이 일어났던 2011년과 2012년 튀니지에서는 러시아 곡물수출 중단으로 '재스민 혁명'에 의해 독재정권이 붕괴되기도 했다.

그는 “선진국은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 생산량 감소와 식량무기화에 대비해 생산성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쌀 생산성 유지기술 투자 기술이 41%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4%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육종 등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BT) 융복합을 통한 식량작물 분야의 미래 성장산업 산업화,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품질 개발이 이뤄지면 우리 쌀도 수출길에 오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내놨다.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전용 고품질 쌀 품종을 개발하고 수출 쌀 전용 단지도 조성해야 한다.

농진청이 개발한 '전주625호'는 쌀알이 길고 밥맛이 차진 자포니카 쌀이 고가에 판매되는 중국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김 원장은 “자포니카 쌀은 일본, 대만, 중국산과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품질 경쟁력 확보는 필수”라며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쌀 품질 경쟁력이 확보된 엄선된 쌀을 수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쌀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이를 쌀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2000년 119.6kg이었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kg까지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수량 중심 생산에서 품질고급화와 가공산업 활성화의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농업소득 중 쌀의 비중과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30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상황”이라며 “농진청은 2003년부터 최고품질 벼 품종을 개발해 18종을 보급했고, 아울러 '수원542호', '한가루', '신길' 등 쌀가루 전용 품종을 육성해 관련 산업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책, 연구, 생산, 수출을 책임지는 조직을 만들고,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수출 전략 수립과 수출 쌀 생산단지 지원 등 수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해외 판촉과 수출 대상국에 맞는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원장은 “식량산업 현장을 중시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과학기술개발 보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노지 스마트농업을 위한 ICT, 사물인터넷(IoT) 등 접목으로 정밀농업 실현에 필요한 기초기반기술과 실용화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공동기획 : 농촌진흥청

KB 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 좋아요 ♥ 보험, 좋아요 ♥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LOVE YOURSELF 프로젝트**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자신을 챙기지 못하는 국민 여러분 - KB손해보험과 KB생명보험이 [나를 위한 LOVE YOURSELF 프로젝트]로 빠짐없이 챙겨드릴게요!
꼭 필요한 보장만 모아 빈틈없이 통합관리해주는 보험

보험은 역시 KB입니다

KB 손해보험
아이의 미래, 더 밝아질 수 있도록
KB 자녀보험

KB 손해보험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KB 건강보험

KB 손해보험
소중한 내차, 더 안전할 수 있도록
KB 자동차보험

KB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를 쉽고 빠르게
KB 간편청구서비스

KB 생명보험
나의 내 가족, 더 안심할 수 있도록
KB 종신보험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예금금액(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본 보장내용을 제외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기밀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장과 있는 다음 중 어느 한가의 경우에 계약이 무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한 경우 *보장계약 전 자세한 상품내용과 계약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업의 심의번호 제18649호(2019.07.08)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7 KB손해보험 빌딩 www.kbinsure.co.kr *고객콜센터:1544-0114 *생명보험업의 심의번호 제2019-02195호 (2019-07-09) *주소: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KB금융타워 www.kbdl.co.kr *고객콜센터:1588-9922

KB 손해보험 | KB 생명보험

CEO 꿈꾼다면 '아마존' 가라

GE 제치고 'CEO 요람' 등극
빅테크 시대 인재상 변화
홀루·위워크도 아마존 출신

과거 수십 년간 제너럴일렉트릭(GE)은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사관학교'로 명성을 떨쳤다. GE의 엄격한 경영 프로그램을 통과한 임원들은 험디포와 3M 같은 대기업 CEO로 영전했다.

그러나 빅테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런 관행이 깨지고 있다. 온라인 공룡 아마존이 GE를 제치고 CEO와 스타트업 설립자들을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개했다.

WSJ에 따르면 설립된 지 3년 된 주택관리서비스 스타트업 랫첼(Latchel)의 경우, 시애틀의 거대한 이웃 아마존닷컴의 '14가지 리더십'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 월 고든 랫첼 공동창립자가 회사를 차리기 전 약 3년간 아마존에서 근무하며 체득한 것이다. 그는 '철저한 고객 중시(Customer Obsession)', 신속한 실행을 중시하는 '행동 우선(Bias For Action)' 등 아마존의 유명한 경영 스타일을 흡수, 기업 세계에 퍼뜨리는 아마존 동문회의 일원이 됐다.

고든처럼 자신의 스타트업을 차리거나 다른 기업의 CEO로 자리를 옮기는 아마존 출신 인재는 무수히 많다. 랫첼 외에 넷플릭스 경쟁사인 훌루, 이커머스 플랫폼 베리소프와 마리화나 허브 리

CEO 이름(업체명)	아마존 근무기간	아마존 근무 당시 최종 직책
팀 레슬리(리플라이)	1998~2019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인터내셔널 부사장
로라 오비더스(온엑스맵스)	1998~2018	소비자가전 부사장
제프 유르시신(졸릴리)	2004~2018	소프트라인 프라이빗 브랜드 부사장
제이슨 킬라(홀루)	1997~2006	월드와이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선임 부사장
서베스천 거닝햄(위워크)	2007~2018	선임 부사장
케이트 칸(베리소프)	2001~2018	선임 부사장, 퀴드시리테일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플라이홀딩스, 트럭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 컨보이 CEO가 아마존 출신이다.

아울러 태블로소프트웨어와 미국 유아용품 전문 전자상거래업체 줄리리, 그루폰, 스페인 대형은행 BBVA의 온라인 banking 자회사인 스피름은 아마존 출신 인재를 수장으로 영입했다. 최근 경영난에 빠진 세계 최대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도 아마존 선임 부사장을 역임한 서베스천 거닝햄을 공동 CEO로 기용해 경영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들 아마존 출신 CEO들은 과거 아마존에 다닐 때 배운 교훈을 잘 활용한다. 아마존의 경영 문화는 잘 정의되어 졸업생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아마존 정신의 핵심은 직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도전하도록 장려하는 스타트업 정신이다. 다만 협업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가혹한 고용 관행은 채택하지 않으려 한다.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팀을 민첩하게 유지하고 데이터를 통해 사업적

결정을 객관적으로 하려는 좋은 문화는 적극 채용한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14가지 리더십 원칙 이외에 독특한 경영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피자 두 판' 규칙은 사내 팀을 구성할 때 피자 두 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적은 인원으로 꾸리라는 것이다. 이는 방만한 조직 운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회의는 '침묵의 30분' 동안 모든 참가자가 6페이지로 정리된 자료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서 시작한다.

아마존이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제프 베이조스(사진) 아마존 CEO도 '경영의 대가'로 거듭나고 있다. 그의 연례 주주총회 서한은 경영자들이 가장 탐독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됐다. 베이조스는 직원들에게 "혁신을 멈추거나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항상 입사 첫날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철학을 전파하고 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미국 2위 기업인 아마존이 스타트업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이유라고 WSJ는 강조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PEC만 취소 안됐어도... '홍콩'에 발목 잡힌 트럼프

G2 서명 미루는 사이 '인권법' 통과
무역협상 파행엔 '재선 약재'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 고지를 앞두고 갑자기 홍콩 사태가 큰 걸림돌로 떠올랐다. 자칫하면 중국과의 장기 무역 전쟁에서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의회가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상원이 전날 만장일치로 가결한 홍콩 인권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중순 자체적으로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전날 상원이 비슷한 법안을 가결하자 최대한 빨리 법안을 성립시키기 위해 일반적인 조정 절차를 거치는 대신 상원 법안을 그대로 표결에 부쳤다. 중국은 법안이 성립되면 보복에 나설 것을 천명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서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미·중이 지난달 1단계 무역 합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나서 세계 경제에 그늘을 드리웠던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협상이 결렬돼 원점으로 돌아갈 민감한 단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중국은 홍콩 인권법안이 내정간섭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트럼프가 서명해 법이 성립하면 무역협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여야의 초당파적 지지를 얻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 공개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없어서다.

내년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자지만 첫 승리(1단계 무역합의)를 거두거나 아예 결렬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미·중 관세 전쟁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칠레가 이달 개최하기로 했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취소하면서 '나비효과'가 일어난 셈이다. 애초 미·중은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1단계 무역합의문 서명을 성사시켜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려 했다. 그러나 APEC 취소와 함께 이런 계획이 무산되자 새롭게 협상을 벌여야 하는 형국이 됐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번 주 초 "브라질 방문은 올해 시 주석의 마지막 외유"라며 연내 시 주석과 트럼프의 회담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글로벌타임스의 후시진 편집장은 트위터에 "미·중이 곧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이날 글로벌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 21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맥컴퓨터 조립공장을 방문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뒤에서 왼쪽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이방카 트럼프, 오른쪽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오스틴/AFP연합뉴스

팔 안으로 굽은 트럼프 "애플 관세면제 검토"

애플 공장 찾아 "삼성과 같은 기준으로 대우"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4차 관세 부과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 희소식을 안겼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쿡 CEO와 텍사스 오스틴의 애플 고급 사양 PC '맥프로' 생산공장을 방문해 "미국에서 생산하는 한 관세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동안 애플의 가장 큰 현안은 내달 15일로 예정된 15%의 대중국 추가 관세 대상에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애플의 거의 모든 제품이 포함되는 것이었는데, 트럼프

가 이 고민을 단번에 날려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문제는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위대한 회사이지만 애플의 경쟁사"라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 삼성을 대우하는 것처럼 애플을 대우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으로 수출할 때 혜택을 받지만, 미국 회사인 애플은 핵심 제품을 중국에서 조립·생산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중국 관세 대상에서 애플을 면제해주겠다는 의미다.

트럼프는 6월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한 맥프로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요청했을

때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러나 쿡 CEO는 꾸준한 로비와 트럼프 집안과의 친밀한 관계 구축 등을 통해 트럼프의 마음을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정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치고는 이례적인 밀월 관계다.

트럼프의 '관세 적용 제외' 선물에 쿡 CEO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없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날 작년 12월에 건설 계획을 발표한 오스틴 신사옥이 맥프로 공장 근처에서 착공한 것도 발표했다. 2022년 완공되면 1만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에게 투자 확대를 어필하는 모습이다. 변효선 기자 hsbyun@

中, 블록체인 특허數 세계 1위

'4차산업 기술굴기' 10년간 약 7600건... 미국의 3배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에서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독주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에 맞먹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기술력에서 선점하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지식재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본 아스타뮤제는 2009~2018년 이뤄진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독일 5개국에서의 출원 건수는 10년간 약 1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까지는 100~200건대로 추이했지만, 2016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의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국의 출원 건수는 10년간 약 7600건이었다. 이는 전체의 60%를 차지한 것이며, 미국(2600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은 1150건으로 3위, 일본은 380건으로 4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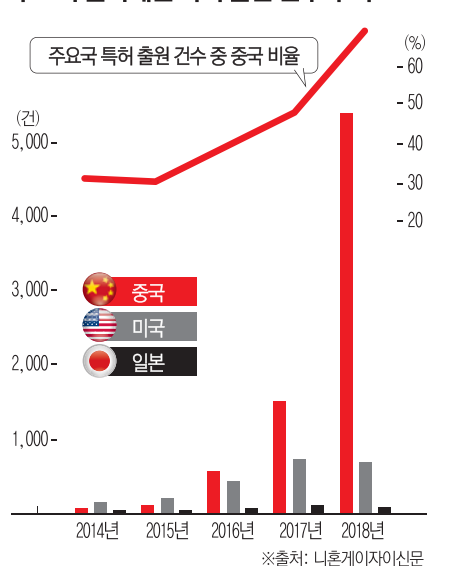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도 중국에서 나왔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512개로 1위에 올랐다. 영국의 엔체인은 468개로 2위, 미국 IBM이 248개로 뒤를 이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최근 용도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분산장부 기술로 데이터 조작이 어려운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는 물론 물류 등 기반

주요국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 추이



인프라로 응용이 진화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에 사용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부문에서는 상품 생산, 물류, 배송 등을 추적하는 데 활용한다.

기업들만이 아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연구소를 설립해 기술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인민은행과 스웨덴 중앙은행은 자체 가상화폐 출시를 준비 중인데, 여기에서도 블록체인은 핵심 기술이다.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23년 159억 달러(약 18조 원)로 올해의 6배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30%가 금융 분야에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우리에게 혁신의 자연스럽다

#친환경 전기차배터리

친환경 자동차 시대
SK가 전기차 배터리로 앞서갑니다
더 빨리 충전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안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듭니다
우리의 혁신이 자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SK 이노베이션

마케팅비 줄인 카드사 “당국, 규제 완화로 화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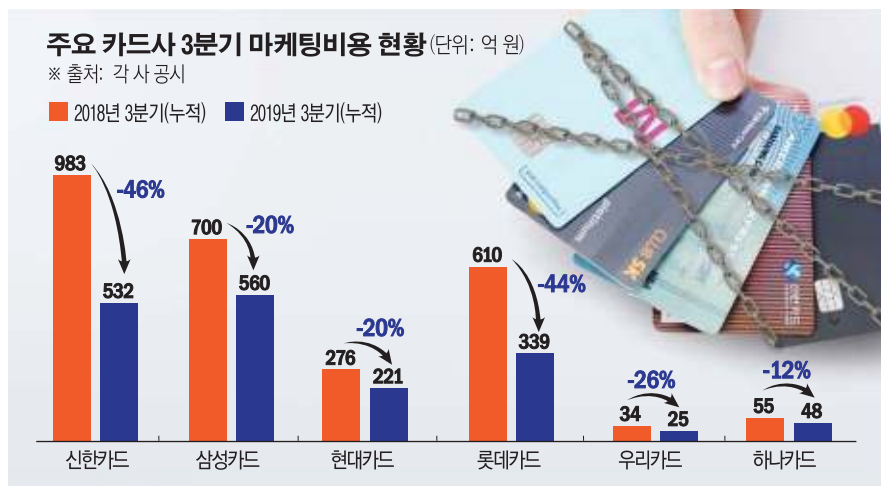
사업 다각화 등 흑자됐지만 수수료 수입 감소 여전
레버리지 비율 완화·핀테크 업체와 역차별 해소 촉구

카드사들이 올해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여 금융당국의 규제 보폭 맞추기에 나섰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으로 카드사 마케팅 비용 축소를 요구했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응답한 만큼 레버리지 비율 완화와 핀테크 업체와 역차별 해소 등 정책 요구 사항이 수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각 카드사 3분기 공시에 따르면 올해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해보다 마케팅 비용을 분 당 100억 원 가까이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올해 3분기 판매촉진 비용으로 약 198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분기 306억 원과 비교하면 35%(108억 원) 이상 마케팅비를 줄인 셈이다. 올해 누적 판매촉진비는 532억 원

으로 지난해 983억 원보다 46%(451억 원) 감소했다. 광고선전비 역시 올해 총 119억 원을 지출해 지난해 131억 원보다 12억 원 줄었다.

다른 카드사도 마케팅 비용이 대폭 줄었다. 삼성카드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 560억 원을 지출해 지난해 지출액 700억 원보다 20%(140억 원)를 덜 지출했다. 현대카드 역시 올해 광고선전비 지출액이 221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276억 원보다 20%(55억 원) 가까이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롯데카드는 지난해 610억 원에서 올해 339억 원으로 44%(271억 원) 이상 관련 비용 지출을 축소했다. 우리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각각 지난해 보다 26%(9억 원)와 12%(7억 원) 줄어든



25억 원과 48억 원을 지출했다. 올해 카드업계는 수수료율 인하로 수수료 수입 감소 여파 줄이기에 나섰다. 특히, 영업점포를 줄이거나 일회성 마케팅 비용인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비 절감에 주력했다. 다만, 카드사 전체가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이

해택도 함께 줄어들었다. 카드업계는 올해 마케팅 비용 축소와 사업 다각화 등으로 흑자를 냈지만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금융수입 확대를 위한 레버리지 비율 확대와 대형가맹점 협상력 남용 제어 등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주현 여신협회장은 14일 여신금융포럼에서 “카드사는 인력 감축과 마케팅 비용 축소와 같은 비용 절감과 새로운 수익원 발굴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레버리지를 완화해 부수 업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 요구대로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신사업을 시행했으니 당국도 규제 완화 등 카드업계가 환영할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떡튀’ 론스타 사태, 영화 ‘블랙머니’로 재조명

금융 인사이트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등
론스타 고발 기자회견 열어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주장

심상정 의원 “재발 방지 위해
국가의 책임 분명히 해야”



를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11년 하나금융에 지분을 재매각했다. 론스타 사건은 이렇게 외환은행을 인수·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혈값 매각’, ‘BIS비율 조작’ 등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현재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돼 손실이 났다며 5조 원에 상당하는 ISDS를 제기한 상황이다. ISDS 판결을 앞두고 최근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머니’가 개봉되면서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영화 개봉을 계기로 이들이 다시 뭉친 것은 ‘책임자 처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남은 법적 절차는 없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 사태의 주범 격인 스티븐 리를 범죄자 인도요청을 통해 송환한 하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

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됐지만, 나흘이 지나서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결국 10여 일만에 석방된 바 있다고 한다. 정부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스티븐 리의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시민단체는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떡튀 과정에서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 펀드와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 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 빌미를 제공해주었다”면서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돼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라고 짚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론스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신한금융, 여성리더 쉬어로즈 콘퍼런스 성료
신한금융그룹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에서 ‘제2회 신한금융그룹 여성리더 쉬어로즈 콘퍼런스(SHeroe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용병(사진 가운데) 회장이 그룹 내 여성 부서장 이상 임직원과 중간 관리자급 여성 오피니언 리더 및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그룹

국민카드, 印尼 캐피탈사 950억에 인수

KB국민카드가 동남아시아 진출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 KB국민카드는 미얀마와 캄보디아에 이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 KB금융그룹 신남방 진출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20일 KB국민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인도네시아 5위 규모 캐피탈사 PT.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 지분 80%를 949억 8300만 원에 인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투자 예정일은 내년 1분기 중이며 투자 이유는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신규사업 수익 발굴”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도네시아 투자는 지난해 4월 캄보디아 합작법인 KB대한특수은행 설립과

라오스 KB코라오리싱 설립 이후 세 번째 동남아 지역 진출이다. KB금융그룹은 최근 신남방 진출 정책을 통해 은행과 캐피탈, 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에 진출해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다음 주 정식 보도자료를 내고 인도네시아 진출을 알릴 것”이라며 “곧 투자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KB국민카드 이사회는 캄보디아 KB대한특수은행에 1110억 원 규모의 추가 신규투자도 결정했다. 투자 이유는 “현지 자본금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자본금 증자”다. 정용욱 기자 dragon@

BC카드, 국제 항공권 결제 혜택 ‘최대 60만 원’

BC카드가 국제선 항공권 결제 고객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국내 6개 저비용 항공사(LCC) 홈페이지에서 유니마일 카드로 국제선 항공권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이나 경품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으로는 우선 티웨이항공은 편도 표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0만 원 할인(카드당 1회, 최대 3인까지 적용, 선착순 360건)된다. 진에어는 왕복 표 20만 원 이상 결제 시 10만 원 할인(카드당 1회, 선착순 600건), 이스타항공은 왕복 표 결제 시 10만 원 할인(카드당 1회, 선착순 400건) 등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항공은 제주도 왕복 표 1매(왕복 표 결제 및 탑승 완료 고객, 추첨 170명)가 제공된다. 에어부산은 허브라운지 2인 무료 입장(왕복 표 결제 시, 선착순 660명), 에어서울은 허브라운지 2인 무료 입장(왕복 표 결제 시, 선착순 330명) 혜택이 제공된다.

유니마일카드는 국내 6개 LCC에서 통합 이용 가능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또 수하물 우선 서비스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담고 있다. 현재 우리카드와 IBK기업은행, 우체국, NH농협카드(25일 출시) 등에서 유니온페이 브랜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해외 가맹점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2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글로벌



엔BC’ 행사도 진행된다.페이북업 #마태그’로 태그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BC유니온페이 카드 고객 누구나 다음 달 20일까지 해외 모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각각 누적 50만 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대별로 최대 10만 원 캐시백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은행 ‘신탁사업’ 통폐합 추진

은행 신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ELT 판매 규모는 42조8000억 원(잔액 기준, 파생결합증권신탁(DLT)포함)에 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의 경우 6월 말 기준 4조3000억 원 규모다. DLF 때문에 시장이 10배나 큰 신탁 상품 판매가 완전히 금지될 상황에 놓인 것. ELT 판매가 제한되면 은행 신탁사업부가 다룰 수 있는 상품은 공모형 주기연계펀드(ELF)나 공모형 상장지수펀드(ETF) 정도다. 하지만 이들 상품의 판매 규모는 미미하다. 연말 조직개편을 앞두고 신탁사업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시중은행은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 신탁은 허용해 달라고 주장한다.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공모와 사모를 구분하는 것도 애매하다”며 “신탁에서 공모를 분리할 수만 있다면 금융당국도 오히려 공모 부분은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원안대로 신탁을 사모로 보고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단 시중은행은 공모 신탁의 ‘계속 판매’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주 동안 은행들과 논의한 후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발표된 대책이 수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책안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점도 수정이 어려워 보인다.

〈연간 내수 판매〉

‘3세대 K5’ 디자인·플랫폼 첫 동시 교체…7만대 목표



카림 하비브 기아차 디자인센터장이 21일 3세대 'K5 미디어 프리뷰'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신형 K5는 플랫폼과 디자인을 동시에 바꾸면서 2009년 1세대 등장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받는다. 아래 사진은 12.3인치 대형 클러스터가 장착된 K5 실내 모습. 사진제공 기아차

호랑이 얼굴에 ‘√’ 모양 주간등 날렵한 골격 ‘쿠페형 세단’ 연상 1세대 이후 가장 큰 변화로 평가 가솔린 2350만원부터 사전계약

3세대로 거듭난 기아자동차 중형세단 K5가 본격적 출시를 앞두고 언론에 공개됐다. 사전계약 접수를 시작하면서 내수시장에서 ‘연간 7만 대 판매’라는 야심찬 목표도 제시했다. 기아차는 21일 경기 용인시에 자리한 ‘기아 비전스퀘어(사내 연수원)’에서 미디어 사전공개 행사를 열고 3세대 K5를 전격 공개했다.

2015년 7월 2세대 출시 이후 4년 만에 선보이는 새 모델은 강렬한 디자인 변화를 앞세워 ‘폴모델 체인지’임을 강조했다. 새로 선보인 3세대는 현대차 8세대 쏘나타와 마찬가지로 신규 플랫폼을 도입했다. 결국 플랫폼과 디자인을 동시에 바꾸면서 2009년 1세대 등장 이후 가장 혁신적 변화로 평가받는다.

먼저 전조등과 프론트 그릴의 경계를 허문 이른바 ‘심리스’ 디자인이 기아차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현대차 심리스와 궤를 뚜렷하게 구분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담

아냈다. 이른바 호랑이 코(타이거 노즈)를 형상화했던 프론트 그릴은 이제 차 전면부 전체가 ‘호랑이 얼굴’을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무엇보다 전조등을 감싸고 돌아 나온 LED 주간주행등이 눈길을 끈다. 헤드램프에서 시작한 주간주행등 라인은 범퍼를 깊숙이 찌른 뒤, 다시 위쪽 펜더로 솟구친다. 흡사 ‘√’ 모양으로 이어진 라인과 관련해 기아차는 심장박동 그래프(바이탈사인)를 형상화한 디자인이다.

지난달 기아차에 합류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선 카림 하비브 기아차 디자인센터장(전무)도 이날 처음 모습을 보였다. 카림 전무는 “10년 전 기아차 1세대 K5를 보면서 역동미에 큰 감동을 받았다”며 “3세대 K5는 높은 디자인 완성도와 함께 첨단 상호 작용형 기술 등으로 앞선 사용자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모델은 길이와 너비를 늘리는 대신 차 높이는 낮췄다.

앞뒤 바퀴 휠베이스는 2850mm로 동급 최대 수준. 여기에 길이와 너비를 각각 50mm와 25mm 늘였고, 차 높이는 오히려 20mm 낮췄다. 이전보다 한결 안정감 있는 모습으로 거듭난 세이다. 트렁크 길이를 과감하게 줄였고 뒷유리를 트렁크까지 끌어내

려 흡사 쿠페형 세단을 연상케 한다. 그랜저와 쏘나타, K7 등과 마찬가지로 후면부 역시 좌우 후미등을 하나로 연결해 날개 모양을 형상화했다.

실내 센터페시아에는 심리스 타입의 12.3인치 대형 클러스터를 심었다. 최근 등장하는 현대기아차가 자주 쓰는 디스플레이이다. 무엇보다 새 모델의 슬로건 ‘인터랙티브(Interactive)’에 주목할 만하다. 운전자와 자동차가 소통하는 기술이다. 예컨대 새 모델은 “에어컨 켜줘” 같은 단순한 명령을 넘어서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 “성에 제거해줘” “앞유리 닦아줘” 등 음성명령을 충직하게 반응한다.

가격은 △가솔린 2.0 모델 2351만~3092만 원 △가솔린 1.6 터보 2430만~3171만 원 △LPI 일반 모델 2636만~3087만 원 △하이브리드 2.0 2749만~3365만 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언론 공개 행사에 나선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은 “K5 1세대를 처음 선보였을 때 디자인에 관심이 쏟아졌던 것을 기억하는데, 이번엔 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내년 전망과 관련해 “올해보다 좋은 신차가 많이 나와 나아질 것 같다”며 “내년 K5 내수 판매 7만 대가 목표”라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포스코인터, 아프리카에 車 강판 공급

포스코의 모로코 진출 터 닦아...곡물 수출도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자동차 강판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모로코에서 생산을 늘리며 강판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고품질의 강판을 생산·공급하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모회사인 포스코의 자동차 강판 공급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는 현재 완성차 업체의 요청으로 모로코 직접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자동차 강판 시장의 기반을 닦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 회사는 5월 아프리카 모로코 카사블랑카에 설립한 지사를 통해 현지에서 자동차를 생산 중인 르노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공장 부지 제공 등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모로코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다. 르노 역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의 20%가량인 연간 40만 대를 모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이 늘어나며 자동차 강판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며 르노는 2017년 포스코에 현지 진출을 제안했다. 모로코에서 자동차 강판을 생산하

는 제철소는 마그레브 철강 한 곳으로, 연간 강판 생산능력은 50만 톤 수준이다. 당시 포스코는 모로코에 생산 공장 건설을 거절했으나, 최근 르노 외에도 푸조 등 완성차 업체들이 다수 모로코에 생산기지를 세우자 현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접 진출을 검토하는 포스코 대신 르노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 역할은 계열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맡았다.

한편,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르노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포스코그룹 100대 과제인 식량 사업을 아프리카 지역에서 육성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미안나 미국종합처리장,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터미널 건설 등 식량 사업 밸류체인 강화를 꾀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크라이나 수출 터미널을 기반으로 곡물 취급량을 늘려 아프리카 서북부 지역에 곡물을 판매하고 있다. 아프리카산 곡물의 수출 또한 추진 중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플라이강원 ‘양양-제주’ 오늘 첫 취항

다음 달 대만 타이베이 진출

3월 도전 세 번 만에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이 첫 항공기를 띄운다.

강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22일 오후 3시 양양공항 여객터미널 2층에서 양양-제주 노선 취항식을 개최한다. 양양-제주 노선은 오전과 오후 하루 2회 운행된다.

양양군과 플라이강원은 취항식에 앞서 오전 10시에 양양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플라이강원은 12월부터 대만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국제선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20년부터 일본·대만·동남아 등 국내외 31개 도시를 향한 하늘길 개척에 나선다. 이를 위해 플라이강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다음 달 강남에 수소 자율주행차 다닌다

현대차, 서울시와 실증 협약 0.1초마다 교통정보 제공받아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와 손잡고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오는 12월부터 도심 수소 전기 자율주행차(사진) 6대가 서울시 강남지역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21일 현대차는 서울시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도시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차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를 무대로 도심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

현대차는 서울시로부터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교통신호와 도로 인프라를 지원받



아 다음 달부터 강남 지역 23개 도로에서 6대의 자율주행차를 시범 운행한다. 또한, 2021년까지 최대 15대의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정보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0.1초 단위로 24시간 제공된다. 현대차는 신호등 색상과 잔여 시간 등

핵심적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한 도심 자율주행을 실현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강남대로, 테헤란로, 언주로 등 강남 지역 23개 도로의 노후 신호제어기 70여 개를 교체하고, 104개 교차로에 신호정보 송출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서울시는 이번 협약으로 2021년 말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서울 강남뿐 아니라 여의도, 상암에서도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까지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하고, 교통사고가 사라진 미래 교통도시의 표준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현대제철 ‘세계일류상품’ 12개...15년째 업계 선두

산업부, 도어 임팩트빔 추가 선정

현대제철이 제품 1개를 ‘세계일류상품’에 추가하며 철강업계 최다 보유의 영예를 15년째 이어가고 있다.

현대제철은 21일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19년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ERW 도어 임팩트빔’이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돼 총 12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게 됐다.

ERW 도어 임팩트빔이란 차량 도어 내에 장착되는 충돌부재로, 측면충돌 시 탑승객 보호 역할을 하는 자동차 부품이다.

올해 세계일류상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ERW 도어 임팩트빔’은 자동차 탑승객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 부품으로 차량 도어가 감당해야 하는 측면 충돌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어 사고 발생 시 자동차 도어가 내부 쪽으로 많이 침투

되는 현상을 방지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을 총칭하는 ‘자동차용 핫스탬핑 제품’을 세계일류상품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자동차용 부품인 ‘ERW 도어 임팩트빔’을 등재하며 ‘자동차 소재 전문 제철소’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세계일류상품은 산업부 주관으로 세계 시장 선도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하는 것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며 해당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 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일 때 자격이 부여된다.

현대제철은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시작한 2001년 H형강과 열간압연용 원심주조 공구강롤(HSS ROLL) 등 2개 제품을 일류상품 반열에 올린 이래 지난해까지 11개의 일류상품을 보유해왔다.

김기승 기자 kissong@

위니아대우 멕시코법인 10월 냉장고 생산 신기록

위니아대우 멕시코 법인이 10월 한 달 동안 냉장고 8만3000여 대를 생산, 1993년 법인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월간 생산량을 기록했다.

위니아대우는 10월까지 멕시코 법인의 누적 매출이 2600억 원을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수치다. 제품별 매출 비중은 냉장고가 42%로 가장 높다. 이어 세탁기(31%), 주방가전(20%) 순이다. 10월 한 달 냉장고, 세탁기 등 현지에서 판매된 제품 총액은 약 3750만 달러로, 440억 원 규모다. 전년보다 모든 제품군에서 고르게 성장했고, 세탁기가 작년 대비 20% 매출이 늘어 가장 큰 성장폭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냉장고는 10%, 주방가전은 9% 성장했다.

한편, 위니아대우는 1993년 멕시코 시장에 진출해 전체 생활가전 톱3 브랜드로서 시장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차세대 TV '마이크로 LED' 대중화 앞당긴다

美 '아이빔머티리얼즈' 투자
극소형 LED, 기판에 촘촘히 배열
색상재현·내구성·소비전력 우수
칩 전자기술·소자개발 성과 이뤘
제조 공정 진전되면 원가 절감



차세대 TV로 불리는 '마이크로 LED TV' 관련 소재 및 장비 등에서 기술 진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QLED TV와 함께 투트랙으로 밀고 있는 마이크로 LED TV의 대중화 시기가 빨라질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6월 146·219·292인치 마이크로 LED TV '더월 럭셔리' (사진)를 공개했다. 하지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가격 탓에 대중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QLED TV와 같은 일반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가 언제 나오느냐가 차세대 TV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VD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자체 연구개발 및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마이크로 LED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에서 가장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칩 전자공정의 기술 진전도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알

려졌다. 대형 전자 기술이 확보된다면 한 번에 수십만 개 마이크로 LED 칩을 동시에 붙일 수 있어 제조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국내 중소 반도체 협력사들도 국책과제 등을 통한 마이크로 LED 소자 개발에 적

극 나서고 있으며, 성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삼성벤처투자 역시 최근 마이크로 LED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 스마트업 '아이빔머티리얼즈'에 투자했다. 삼성벤처투자 관계자는 "현재 업계에서 매우 작은 웨이퍼에서 LED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 회사 혁신기술을 활용하면 대형 기판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초소형 LED를 회로 기판에 촘촘히 배열해 제작하는 것이다. 색상 재현과 내구성, 소비 전력이 월등히 우수한 최첨단 기술로 꼽힌다. LED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들 때 문에 제품 형태와 해상도 설정이 자유롭다는 점도 특징이다.

대중화 관건은 생산 원가 절감 가능성이다. 마이크로 LED TV 기술 발전에 따라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가정용 제품을 양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박람회(CES) 2020'에서 발전된 형태의 마이크

로 LED TV를 공개할지도 관심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반 QLED TV와 같은 가정용 마이크로 LED TV 제품 출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킷에 따르면 마이크로 LED 출하량은 올해와 내년 1000대 미만에 머물지만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26년에는 1550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리 강 IHS마킷 부소장은 "마이크로LED는 기존 LCD(액정표시장치)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보다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밝기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다"며 "마이크로 LED 제조 공정이 성숙되면 생산비가 갈수록 줄어들어 판매량 또한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 마이크로 LED TV 생산 등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자체 연구소에서 마이크로 LED 소자들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 성과에 따라 마이크로 LED TV 대중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록 기자 syr@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현대차 SUV 콘셉트카 'LA오토쇼' 서 첫선
현대자동차가 '2019 LA 오토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콘셉트카 '비전 T(Vision T)'를 최초로 선보였다. 현대차가 20일(현지시간) 공개한 콘셉트카 비전 T는 현대차의 차세대 디자인 철학 '센슈어스 스포티니스(Sensuous Sportiness)'를 보여주는 일곱 번째 콘셉트카다. 비전 T는 정지 상태에서는 그릴이 닫혀 있다가 차의 움직임에 따라 서터가 움직이면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고, 연비효율까지 높여주는 '파라메트릭 에어 서터 그릴'을 갖췄다. 이상엽 현대차디자인센터장 전무가 비전 T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BMW "韓 부품사 파트너십 강화" 삼성SDI 배터리 3.8조 구매 계약

BMW 그룹 코리아가 처음으로 국내 협력사와 함께하는 행사를 열고 협력 강화 계획을 밝혔다. 행사 전날 BMW는 삼성SDI와 29억 유로(약 3조7762억 원) 규모의 배터리셀 구매 계약을 맺기도 했다.

21일 BMW는 인천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에서 30여 개 1차 협력사와 그룹 보드멤버이자 구매 및 협력 네트워크 총괄인 안드레아스 벤트(Andreas Wendt)가 참여한 가운데 'BMW 그룹 협력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BMW 그룹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 협력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과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트 총괄은 기조연설에서 "모든 협력사는 높은 수준의 혁신성을 갖추고 있고, BMW 그룹과 미래 이동을 위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기 이동성과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부문에서 한국 협력사들이 BMW 그룹에 중요

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BMW 그룹은 한국 협력사들의 전문성과 능력을 통한 도움을 지속해서 받기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BMW에 따르면 그룹의 한국 기업 부품 구매량은 2012년 7000만 유로(약 913억 원)에서 2018년 15억 유로(약 1조5982억 원)로 대폭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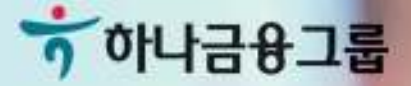
기조연설 이후 행사는 BMW 그룹의 최근 현황과 향후 미래전략을 협력사와 공유하고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브랜드와 모델을 직접 경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BMW 그룹은 수입차 업체로는 처음으로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세운 뒤 25년 동안 판매 외에도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왔다.

BMW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와 부품 물류센터,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BMW 트레이닝 아카데미, BMW R&D 센터 등에 투자했고 전국에 72개 전시장과 82개의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미래금융 위시리스트

- 나도 금융비서가 있으면 좋겠다
- 내게 꼭맞춘 자산관리를 받고 싶다

손님의 생각 하나하나를 모아 더 스마트한 금융을 만듭니다

기술의 능력이 커질수록 손님의 할 일은 줄어들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더 스마트한 미래금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투자 성향을 분석하여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자산관리 서비스



음성 인식 챗봇을 통해 banking 서비스를 누리는
인공지능 금융비서



‘폭풍성장’ 플랫폼 스타트업 “강남 입성 신고합니다”

인테리어 플랫폼 운영 ‘버킷플레이스’ 서초로 옮겨
중고거래 서비스 ‘당근마켓’ 강남역에 새 보금자리
‘힐링페이퍼’ ‘케어닥’ 등도 잇따라 사무실 확대 이전

‘오늘의집’, ‘당근마켓’ 등 성장하는 플랫폼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서울 강남으로 사무실을 확대 이전하고 있다. 서비스 성장과 함께 덩치를 키운 업체들이 스타트업의 성지인 강남으로 속속 옮겨가는 모양새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을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는 올해 9월 공유 오피스 위워크 강남역 지점에서 나와 강남역 서초대로 플래티넘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버킷플레이스의 직원 수는 올해 초만 해도 60여 명이었으나 현재 102명까지 늘어났다. 서비스가 성장 가도를 밟으면서 개발자, 디자이너 등 전 분야에 걸쳐 인력이 확대됐다. 버킷플레이스는 현재 20여 명의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버킷플레이스 관계자는 내년 중순까지 직원이 150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오늘의 집은 이달 월 거래액 300억 원을 돌파했

다. 온라인 집들이, 전문가 시공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서비스로 지난해 12월 월 거래액 100억 원을 돌파한 뒤 1년도 안 돼 3배 이상 성장한 셈이다. 올해 말 누적 거래액은 3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모바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올해 6월 서울 서초역 부근에서 강남역 테헤란로 미림타워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당근마켓 직원은 올해 초 20명에 그쳤으나 현재 40여 명으로 늘었다. 이전의 사무실 수용 인원은 20명이었으나 현재 강남역 사무실 수용 인원은 100명에 달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내년까지 직원이 1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당근마켓은 ‘당신 근처의 마켓’이라는 뜻을 담은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이다. 2015년 7월 출시돼 누적 다운로드 수 800만, 월간 방문자 수(MAU) 300만 명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앱)으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사무실 이전 시기	이전 사무실 위치
오늘의집 (인테리어 플랫폼)	9월	강남역 플래티넘타워
당근마켓 (중고 거래 모바일 플랫폼)	6월	강남역 테헤란로 미림타워
강남언니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내년 초	강남역 인근
케어닥 (요양 정보 플랫폼)	10월	선릉역 테헤란로



로 거듭났다. 올해 9월에는 알토스벤처스와 굿위터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도 내년 초 강남역 부근으로 사무실을 이전한다. 현재 논현역 부근에 사무실을 둔 힐링페이퍼는 올해 초만 해도 직원 수가 20여 명에 불과했다. 현재 직원 수는 60여 명으로 올 초 대비 3배가량 늘었다. 힐링페이퍼 관계자는 “개발자, 마케터, 영상 PD 등 다양한 직군을 계속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언니는 2015년 1월 출시한 앱으로 1400개 병원의 성형 수술과 시술에

대한 실제 후기, 병원 평가를 올릴 수 있는 정보 플랫폼이다. 강남언니의 의료상담 신청 건수는 지난달 50만 건을 돌파했다.

요양 정보 플랫폼 ‘케어닥’은 지난해 부산에서 법인을 설립했으나 지난달 서울 선릉역 부근 테헤란로로 사무실을 옮겨왔다. 케어닥은 지난해 4월 부산에 법인을 설립한 뒤 그해 6월 강원도,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로 사무실을 옮겼고 지난달 선릉역 근처로 이사했다. 올해 초 5명이었던 직원 수는 현재 15명으로 늘었으며 내년 초까지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케어닥은 전국 2만 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보, 사용자 후기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테헤란로로 사무실을 옮긴 배경에 대해 “가장 큰 목적은 직원 채용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의 동선을 배려하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스타트업 대표,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킹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만나야 하는데 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교육, 미팅 등을 고려했을 때 강남으로 사무실을 옮길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스타트업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벤처캐피탈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 중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과 서초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 기준 1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575개로, 이 중 461개사(80.2%)가 서울에 있다. 서울에서 1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강남구 212개(47%), 서초구 71개(15.7%)로 2개 구 비중이 62.7%다. 서울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스타트업은 강남구 62개(45.3%), 서초구 25개(18.3%)로 2개 구 비중이 63.6%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AR글래스 쓰자 눈 앞에 펼쳐진 100인치 화면”

LG U+ ‘엔리얼 라이트’ 독점 공개
전국 35개 매장 등에 체험존
내년 상반기 상용화 계획



LG유플러스가 고객들에게 확 달라진 ‘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

21일 LG유플러스는 AR글래스 전문 제조기업 엔리얼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AR글래스 ‘엔리얼 라이트(Nreal Light·사진)’를 국내 독점 공개했다.

AR글래스는 안경을 쓰듯이 자연스럽게 기기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가장 큰 특징은 ‘몰입감’이다. 좋아하는 스타나 희귀동물들 눈앞에 현실로 불러와 만나볼 수 있고, 프로야구·골프 등 스포츠 중계를 나만의 대화면으로 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엔리얼의 AR글래스로 내년 1분기까지 시범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시에, 고객 의견 반영 및 보완, AR글래스 플랫폼 구축 등 상용화 준비 과정을 거

쳐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35개 매장과 영화관, 지하철 등 5개 팝업스토어에 고객 체험존을 운영하며,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AR글래스와 5G 스마트폰인 ‘V50S ThinQ’를 연동한다. 스마트폰과 AR글래스를 USB선으로 연결하면, AR글래스의 고화질 마이크로 OLED로 3D AR콘텐츠를 더욱 실감나게 감상하는 것은 물론, 2D·3D 일반 콘텐츠를 100인치에 달하는 대화면으로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U+AR’ 앱의 스타 콘텐츠를 스마트폰 화면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만

나, 좋아하는 스타가 펼치는 공연을 AR글래스를 착용한 상태로 직접 360도 돌아보며 앞모습과 함께 뒷모습까지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U+모바일TV’의 콘텐츠도 AR글래스의 대화면으로 보면서 재생되는 화면을 확대·축소는 물론, 원하는 위치로 화면을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엔리얼과 이번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다양한 5G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텔레프레즌스(원격회의)를 비롯해 5G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키보드·마우스를 연결하면 AR글래스를 통해 100인치 이상의 대화면으로 PC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PC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R글래스를 활용한 쇼룸 서비스도 검토한다. LG하우시스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AR콘텐츠로 시공된 제품이나 공간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예정이다. 희귀동물 등 3D AR 콘텐츠를 활용한 실감형 교육도 준비한다. 이재훈 기자 yes@



조성욱(앞줄 왼쪽 세 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네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인 만남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추겠다”

업계 “불공정거래 근절율”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우리 경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 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30여 명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중소기업계 현장의 애로 호소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것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중소기업을 돌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두려워해 건의 사항을 말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협상 문턱을 낮추는 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법적 문제에도 열악하기 때문에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공정위는 손해액 추정제, 자료제출명령제 등 분쟁 해결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애로 건의와 함께 건설·자동차·물류·소프트웨어 산업 등에서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개선 방안과 기술 탈취 근절 관련 제재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 탈취 부분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았다는 의견보다 6~7배나 높은 정도로 개선된 부분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임금 몰아주기 등의 관행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들리고 미중 무역전쟁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많아, 중앙회도 현장 조사를 통한 의견을 공정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LG CNS-카카오 ‘그라운드X’ 블록체인 사업 협력

“각 회사 기술 강점 결합, 새로운 사업기회 발굴”

LG CNS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사업 확대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각 사가 보유한 블록체인 기능과 서비스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호환 가능한 기술적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LG CNS는 지난해 5월 프라이빗(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Monachain)’을 출시한 후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올 초 한국조폐공사의 지역화폐 결제 플랫폼 ‘착(chak)’을 구축했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적용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2월 경기도 시흥시를 시작으로 성남시, 군산시, 영주시, 제천시 등 지자체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7월에는 LG유플러스가 LG CNS의 모나체인을 적용해 분실되거나 파손된 휴대폰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마련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이 LG전자와 KB

손해보험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고객은 해당 보험사에 서비스 센터 수리 내역, 영수증 등 보험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G CNS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간 경계를 허물고, 각 사의 기능과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라운드X 관계자는 “국내 대표 IT서비스 기업인 LG CNS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사업 모델을 발굴, 블록체인 생태계의 팽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건강기능식품>

식품업계 이유 있는 '건기식 식탐'

시장 규모 5년 새 1.4배 성장 주력 식품사업 경험 활용해 실적정체 돌파구 모색 나서



식품업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 공략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빙그레와 CJ제일제당이 건강 브랜드 론칭을 통해 시장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최근 아워홈과 해태제과 등도 관련 제품을 출시하고 나섰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우 성장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기존 식품 사업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전반적인 시장 정체 속에서 식품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시장조사 전문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4년 4조5000억 원, 2015년 4조7000억 원, 2016년 5조1000억 원, 2017년 5조3000억 원, 2018년 5조6000억 원을 기록하며 매년 성장해왔다. 올해는 5조9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빙그레와 CJ제일제당은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올해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빙그레는 6월 건강 지향 통합 브랜드 'TFT'를 론칭하고 하위 브랜드로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비바시티(VIVACITY)'를 선보이며 건강식 시장 진출을 본격 선언했다.

TFT는 맛(taste), 기능(function), 신뢰(trus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브랜드로 '맛있으면서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 TFT는 건강 지향 통합 브랜드로 각 제품의 속성에 따라 다양한 하위 브랜드와 제품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비바시티는 28~35세 여성을 대상으로 스틱젤리 3종과 구미젤리 3종을 출시했다.

스티젤리 3종은 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히알루론산,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B1·나이아신·B6),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

성말토크스트린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구미젤리 3종은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연,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성분이 들어 있다.

CJ제일제당도 8월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인 '리턴업(Returnup)'을 출범했다. '리턴업'은 신체의 변화를 급격하게 느끼는 40세부터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액티브시니어까지 각 연령대에 맞는 건강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별 중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연령별, 기능별로 제품군을 이원화해 차별을 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CJ제일제당은 '기초영양'과 '기능성' 두 개 카테고리로 리턴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영양 제품은 이달 출시된 '리턴업 발효비타민' 5종과 '노르웨이 오메가-3', '발효효소' 등 총 14종의 라인업을 갖췄다. 기능성 제품으로는 남성의 전립선 건강을 위한 '전립소',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건강 기능식품 '포에버린', 눈 건강기능식품 '아

이시안' 등이 있다. 후발 주자의 추격도 거세다. 아워홈은 19일 건강기능식품 '밸런스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출시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처음 뛰어 들었다.

'밸런스인 1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알당 유산균 100억 마리 섭취를 보장하는 고품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다. 세계 3대 유산균 제조사인 미국 다니스코사에서 생산되는 유산균 중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유산균 7종만을 엄선해 식물성 캡슐에 담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아워홈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에 대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라며 "'밸런스인 1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시작으로 건강기능식품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태제과는 초콜릿으로 '장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해태제과는 장건강 초콜릿 '젠스 프락토올리고당'을 6일 출시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단맛은 설탕의 70% 수준이면서 장내 유익균 증식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차세대 감미료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유산균과 다르게 대부분 성분이 장까지 도달해 '방탄유산균'이란 별명도 있다.

이 제품에는 하루 권장량에 해당하는 7000mg의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 있다. 이는 시중 제품보다 2배가량 많은 수치다. 해태제과는 향미를 좌우하는 바닐라도 천연으로 대체하며 '기능성'과 '맛'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뉴페이스'의 시장 진출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기존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마케팅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판매 대상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전략인 셈이다.

건강식품 전문기업 전호엔케어는 10대를 위한 액상 스틱형 건강기능식품 '키슈옥탄'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스스로 건강식품을 챙겨 먹기 어려운 10대들의 습관을 고려해 섭취 편의성을 강화한 액상 스틱 형태로 개발됐다. 휴대와 섭취가 간편해 집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들어온 딸기의 계절 이마트는 개점 26주년 기념 행사 마지막 주를 맞아 27일까지 겨울 딸기를 500g 1팩당 9800원에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 출하를 시작한 딸기는 현재 전년 대비 시세가 10% 정도 높은 상황임에도 이마트는 농가들과 사전 기획으로 물량을 확보해 평년보다 약 10%가량 저렴하게 기획했다. 딸기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만 함유돼 있어 하루에 6개 정도만 섭취해도 일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다. 사진제공 이마트

'코세페 쇼핑 열기' 연말까지 쭉욱~

롯데백 24일까지 '썬데이' 행사 이커머스 '블프' 맞서 할인 공세 갤러리아 등 성탄절 분위기 조성

11월 쇼핑 축제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맞춰 각종 행사를 진행했던 유통업계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겨냥해 또 한번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어서다.

롯데백화점은 24일까지 연중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롯데 썬데이' 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백화점과 아울렛 전체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1만 원 무적 쿠폰'을 배포하고, 룰렛을 활용해 최대 50% 금액 할인권을 증정받을 수 있는 '썬데이 룰렛'을 진행한다. 22일부터는 해외명품 시즌오프 행사도 열어 랑방과 로에베, 겐조, 엠포리오 아르마니 등 총 90여 개 브랜드를 최대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백화점 최초로 '삼성전자 8% 상품권 행사'를 진행해 100만 원부터 1000만 원대까지 금액대별로 삼성전자 제품을 구매 시 구매 금액의 8%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는 '한파타파' 행사를 열고 제철 수산물과 피코크 겨울간식, 방한 의류 등을 할인 판매한다. 또한 개점 26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7일까지 '이모작 핫감자'를 100g당 388원에 내놓고, 겨울 딸기

를 500g 1팩당 9800원에 선보인다.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파티 용품을 할인된 가격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레드위크(Red Week)' 프로모션을 이달 4일까지 진행한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직접 경쟁하는 온라인 업체의 할인 공세는 더욱 뜨겁다. 11번가는 '십일절 애프터파티'를 통해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3000원 쿠폰을 발급하고, 23~24일 이틀간 해외직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달 1일까지 패션·뷰티 제품을 최대 7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GM켓은 '패션 윈터세일'을 통해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35% 할인쿠폰'을, 일반 회원에게 '30% 할인쿠폰'을 매일 3장씩 제공한다. 옥션의 '패션 스타 일위크'에는 타터마틴, 콜핑 등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백화점 외관에 일찌감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해 11월 쇼핑 열기를 잇기 위한 마케팅도 눈에 띈다. 롯데월드타워는 LED 조명과 디지털스크린을 활용한 멀티 미디어쇼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진행하고, 신세계는 본점 외관을 크리스마스 트리 형식으로 꾸미고, 자체 캐릭터인 '푸빌라'를 앞세워 한 달 먼저 크리스마스 마케팅에 돌입한다. 갤러리아 명품관은 백화점 외관을 형형색색의 루이비통 모노그램 패턴으로 꾸몄다.

남주현 기자 jooh@

백종원 파워... CU, 간편식 2억 개 팔렸다

CU와 백종원이 협업한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BGF리테일 편의점 CU(씨유)는 요리연구가 백종원과 손잡고 선보인 백종원 간편식 시리즈의 누적 판매량이 11월 말 기준 2억 개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CU와 백종원은 2015년 12월 백종원 한판 도시락과 매콤불고기정식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도시락, 주먹밥, 김밥 등 총 90여 종의 간편식을 출시했다. 연평균 약 22.5개의 제품을 출시해 약 5000만 개가 판매된 셈이다.

실제, 지난 4년간 CU의 도시락 판매량 상위 10위 제품 중 1위부터 8위까지 모두 백종원 도시락이 차지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은 백종원 한판 도시락으로 총 2200만 개가 판매됐으며 다음으로 매콤불고기정식 2000만 개, 맛있닭가슴살 도시락 1200만 개 순으로 나타났다.

BGF리테일 조성욱 간편식품팀장은 "백



요리연구가 백종원(가운데)이 BGF리테일 간편식품팀 MD들과 도시락 개발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BGF리테일

종원 간편식의 인기 비결은 집밥처럼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백종원 요리연구가의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며 "편의점 도시락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 시장의 성장은 물론, 쌀 소비량 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無主空山>

무주공산 '군납 위스키' 롯데주류 독점하나

매년 규모 줄면서 납품업체 공장 잇단 폐쇄 업계 "사실상 경쟁상대 사라져 독주 가능성"



롯데주류가 내년도 위스키 군납 시장에 무혈 입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페르노리카코리아에 이어 디아지오코리아마저 내년 6월 이전 공장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서 군납 자격을 갖춘 업체가 롯데주류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21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위스키 시장 침체와 매출 부진으로 부평 공장의 라인을 경산으로 이전키로 한 롯데주류가 군납 수혜자로 부상했다.

군납 위스키는 장병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면세 제품과 장병 가족을 대상으로 한 비면세 제품으로 나뉜다. 그러나 세금 부과 여부를 떠나 모두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이어야만 입찰이 가능하다. 해외에서 병입까지 마친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입찰자격조차 없다.

그동안 글로벌 위스키 기업들은 대부분의 물량을 해외에서 완제품 형태로 수

입해왔지만 군납 시장을 겨냥해 국내에서 병입 공장을 운영해왔다. 원액은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하고 이 원액을 병에 담은 단순한 공정 만으로도 국내 생산 요건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납 위스키 시장도 매년 10%가량 납품 규모가 줄면서 글로벌 위스키 기업들이 공장 운영보다 해외 생산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속속 국내 공장 문을 닫게 됐다.

올해까지 군납으로 공급되는 위스키는 △롯데주류의 스카치블루 17, 스카치블루 21 △드링크인테너셔널(구 페르노리카 임페리얼)의 임페리얼 17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 21 △페르노리카코리아의 발렌타인 17 △솔라웨의 골드윈 등이다. 지난 몇 년간 이들 업체는 군납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

다 지난해 페르노리카 공장 폐쇄, 내년 디아지오코리아의 공장 폐쇄를 기점으로 군납 시장에서 더 이상 경쟁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사실상 군납 위스키 공급 자격을 갖춘 기업은 롯데주류와 골든블루 정도에 불과하다. 골든블루의 경우 국내 공장에서는 22년산 프리미엄 제품에 한해 병입을 하고 있는 만큼 롯데주류의 군납 독주 체제가 내년부터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위스키업계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국내 생산 중단에 따른 최대 수혜자로 롯데주류를 꼽고 있다. 롯데주류는 오랜 군납 경험이 있는 데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군납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위스키 기업이 늘면서 위스키 시장 점유율이 낮은 롯데주류가 군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질 것"이라며 "사실상 경쟁상대가 없는 시장에서 나홀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배당 시즌에 돈 빠지는 '배당주 펀드'

기업 실적 부진에 매력 떨어져 3개월 새 3220억 ↓
증권가 "저금리 기초·주주환원주 확대... 투자 적기"

연말 '배당 시즌'이 찾아왔지만 배당주 펀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 배당 기대감이 줄어든 투자자들과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배당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1일 한국펀드평가에 따르면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배당주 펀드 272개의 설정액은 전일 기준 12조1586억 원으로 최근 3개월간 322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업 실적 부진으로 배당 기대감이 줄면서 배당주 펀드에서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펀드 유형별로 보면 배당주식을 담고 있는 펀드 중에서는 '신영밸류고배당' 펀드에서 1858억 원이 유출됐다. 이외에도 'KB 액티브배당' 145억 원, '마이디스 블루칩배당' 86억 원, '베어링고배당증권투자회사' 84

배당주 펀드 수익률 현황

(단위: 억 원, 20일 기준, 3개월 평균)

펀드명	유형	설정액 증감
신영밸류고배당		-1858
KB 액티브배당	배당주식	-145
마이디스 블루칩배당		-86
신영퇴직연금배당40	채권혼합	-247
ARIRANG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	-374
KBSTAR 고배당		-238

* 출처: 한국펀드평가

억 원, '신영퇴직연금배당주식' 66억 원 등이 빠져나갔다. 아울러 주식혼합형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 펀드와 채권혼합형 '신영퇴직연금배당40' 펀드 설정액이 각각

705억 원, 247억 원 줄었다. ETF 중에서는 'ARIRANG 고배당주' ETF에서 374억 원이, 'KBSTAR 고배당' ETF에서 238억 원이 유출됐다.

그럼에도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배당주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주주환원주의 확대 등으로 배당이 점차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꼭 주가 수익률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배당에 집중하기보다 배당 지표를 참고로 해서 주가수익률도

낼 수 있는 주당배당금(DPS) 성장에 집중해 투자하는 것도 전략"이라고 짚었다.

배당주 펀드는 높은 수준의 배당을 약속한 여러 종목에 분산해 투자한다. 따라서 한 종목이 아닌 배당주 전반과 기타자산에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주가로 기본 수익을 내는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수익률도 5.64%에 달한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실적을 안정적으로 낸 기업을 찾고 이를 담은 배당주 펀드를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파일 컨설팅 기업서 '종합건설 시공사' 도약"

기업탐방

이엑스티

최대주주 장원테크로 변경
성남난생산자조합과 사업 계약
토목 등 공사 일체 우선권 획득
최근엔 NH투자증권 사옥 매입도

창립15주년을 맞이한 이엑스티가 건설 기초와 파일 컨설팅 기업에서 종합 건설 시공사로 도약한다. 이엑스티는 올해 진행한 개발 사업들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엑스티는 건설 현장에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공법과 제품을 개발했다. 특히 제조·기술용역 분야의 핵심인 이엑스티파일(Ext-Pile)은 기초공사 과정에서 쓰이는 PHC 파일의 비용을 줄여주는 제품으로, 빌딩과 아파트, 교량, 육교 등 다양한 건설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특히 건설 부문을 대표하는 기술이 PF(Point Foundation)와 SAP(Screw Anchor Pile) 공법이다. PF 공법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연립주택 등 중저층 구조물의 기초에 최적화된 기술로 땅에 파일을 삽입하지 않고도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스크루를 부착한 고강도 강관으로

로 지반을 천공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술로 건물 리모델링, 기초보강, 수직 증축, 철도시설 구축 등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이엑스티는 올해 3월 최대주주가 창업자인 송기용 전 대표에서 장원테크로 변경되면서 다양한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앞서 8월에는 성남난생산자조합과 지분 취득 및 공동 사업 추진 관련 계약을 맺었다. 계약 체결에 맞춰 성남난생산자조합에 일부 자금을 냈고, 이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토목 등 본 사업부와 관련 공사 일체에 대한 우선권을 획득했다"며 "이를 토대로 기초 토목 부문의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종합건설 시공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돼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연내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엑스티는 또 최근에는 여의도공원을 마주한 대로변에 있는 NH투자증권 사옥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에도 뛰어 들었다. 대지면적 3707㎡, 연면적 4만5499㎡의 대형빌딩으로, 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으로 2년간 NH투자증권에 임대한 뒤 착공해 3년의 공사 기간 거쳐 2025년 재건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주변에 IFC몰과 콘래드 서울 등의 대형 상업시설로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데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복합상권에 있어 입주기관 종사자 수요와 외부 유입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글로벌 호텔 브랜드와 제휴·운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Serviced-Residence)로 개발해 주거시설의 모든 기능과 호텔서비스 및 기타 부대시설을 아우를 수 있는 고품격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물 인수 대금은 2551억 원에 달한다. 자본금 500억 원에 매출이 300억 원대에 불과한 이엑스티의 외형만 보면 재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인수에 따른 부담은 없다고 단언한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건을 위한 PFV를 공동출자·설립해 PFV가 주체가 돼 매입·개발하는 형태"라며 "매입 자금 조달 및 운영 유지비용은 재무 레버리지, 2년간 임대조건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의 상쇄 효과 발생으로 재무적 부담은 없다"고 밝혔다. 또 "주택사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사업 다각화로 활로 찾기에 나서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업이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면서 "이엑스티가 잘하는 기초 분야에서의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투자할 것이며, 그런 기초 위에서 사업의 다각화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대성엘텍, 부채비율 낮추기 분주

'자산재평가' 카드 9년 만에 다시 꺼내

대성엘텍이 연말을 앞두고 부채비율을 낮추기에 분주하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3분기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서면서 토지 재평가를 통한 자산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앞서 대성엘텍은 7일 경기도 평택시 대성엘텍 공장용지(세교동 537-4)와 서울 금천구 테크노빌 507-514호에 대해 재평가하겠다고 공시했다. 그 결과 장부가액이 1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늘면서 70억 원의 재평가 차액을 냈다. 차액은 자산 총액 대비 6.72% 수준이다.

이번 자산 재평가에 따라 재무구조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재평가를 통해 이연법인세부채는 15억 원 규모로 늘었지만, 재평가잉여금의 유입으로 자본은 55억 원이 늘었다. 이를 3분기 보고서에 반영해보면, 부채는 788억 원에서 803억 원으로, 자본은 384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추산된다. 자산은 1172억 원에서 1242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부채비율은 205%에서 183%로 22%p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2016년 3분기부터 유지해온 부채비율을 다시 100%대 기조로 회복하면서 결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성엘텍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당시에도 연말(12월)에 진행됐다. 대상은 올해 실시한 토지 2곳에 공장용지(평택시 세교동 555)를 더해 총 3곳이다. 2010년 12월 당시 82억 원의 차액이 발생해 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 부채비율은 2009년 384%에서 2010년 229%로 줄었다.

한편 이번 재평가를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대성엘텍 실적 현황

(단위: 억 원,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매출액	3654.9	3505.8	3480.8	2897.76
영업이익	76.2	20.6	-14.1	-34.7
부채비율	138.06	128.33	155.2	205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상 가치만 변경될 뿐, 실제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대성엘텍의 영업이익이 하락세를 보이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목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작년에는 영업손실 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에 접어들었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35억 원, 당기순손실은 48억 원 규모다.

곽수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는 "자산 재평가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를 회계장부에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회사가 그 유형자산을 곧 처분할 의도가 있거나 가치 증가만큼의 현금유입이 수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회사 관계자는 "최근 평택 GTX 노선 연장 검토 및 삼성 신공장 건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다"며 "시세와 장부가액 차액을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정부 과제로 진행된 사업에 R&D 투자 비용이 늘었다"며 "자동차 업황 부진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홍콩 지역으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을 노력했지만, 최근 국제 정세가 좋지 않아 투자 대비 성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실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예탁원 차기 사장에 김근익·김기식 '하마평'

이병래 사장 임기 만료 앞뒀

이병래 사장의 임기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탁결제원이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하면서 유력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내달 22일 이병래 사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6일 이사회를 열고 후임 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를 최종 확정했다.

인선 절차는 사장 공모 공고, 임시주주총회 공고를 거쳐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되면 금융위원회 임명을 거쳐 확정되는데 임추위는 비상임이사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후임 사장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재직 중인 김근익 원장과 이명호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이 유력하다고 전망한다.



김근익 김기식

이 밖에 기업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

장도 예탁원 후임 사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조의 외부인사에 대한 반발이 강하고 정부 역시 공식적으로는 낙산 인사를 지양하고 있는 만큼 내부승진이 나 현 이병래 사장의 연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장 선임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이번에도 관료 출신이나 정치권 인사가 취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예탁결제원은 1974년 설립 이래 내부에서 사장으로 선임된 사례는 한번도 없다. 현 이병래

사장과 전임자인 유재훈 전 사장도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때문에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후임 사장 인선에서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며 낙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난관을 넘어 사장으로 취임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9월 시작한 전자증권제도의 확산이 첫 번째 미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 유관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도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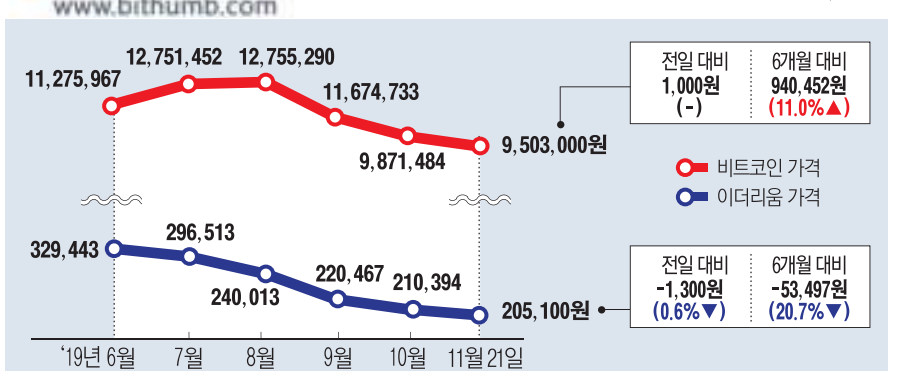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후임 사장 인선을 위한 첫 단추인 임추위 구성을 마친 상태지만 아직 다음 단계인 사장 공모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 사장의 임기만료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이른 시간 내에 공모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 (2019년 11월 21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85,000	1,900 (0.7%▲)	모네로	67,700	-1,100 (1.6%▼)
리플	292	-2 (0.7%▼)	비트코인골드	8,620	-135 (1.5%▼)
라이트코인	63,600	-1,450 (2.2%▼)	이더리움클래시	5,115	-70 (1.4%▼)
대시	74,400	-1,700 (2.2%▼)	퀀텀	2,184	-78 (3.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WON 하는대로 우리 WON 뱅킹



깔끔해진
메인 화면



확 줄인
상품 가입 단계



찍어서 납부하는
공과금



말로 처리하는
보이스뱅킹



흔들면 바로가는
모션뱅킹



딱 맞는
상품 안내

WELCOME EVERY WON

기간: 2019.09.09(월) ~ 11.30(토) / 당첨자 발표: 2019.12.10(화)

우리WON뱅킹
상품가입 이벤트

경품: 노트북, LG프라임, 신세계상품권 등

우리WON뱅킹
WON통장만들기 이벤트

경품: 영화예매권 (매일 400명 한정)

우리WON뱅킹
로그인 이벤트

경품: 커피쿠폰 (매일 400명 한정)



우리WON뱅킹
다운로드하기

* 이벤트는 은행 영업시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1664-5000)로 문의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0번도 참조. * 우리은행은 전자 특약 문자를 통해 '대행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0번도 참조.

2019.10.09. 현재 기준이며, 기타 사항은(우)2019-11월 30일 기준

〈동래·수영·해운대구〉

‘조정대상지역’ 고삐 풀린 부산, 경매까지 들썩

이달 아파트 낙찰가를 85.7%... 18개월 만에 최고
재송동 더샵센텀파크 물건 감정가보다 비싸게 팔려
연립·오피스텔도 인기... 유찰됐던 물건도 주인 찾아

올해 1~11월 부산 아파트 경매 현황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수(명)
1월 39.8%	84.0%	6.3
2월 34.5%	83.7%	5.1
3월 41.1%	82.2%	5.2
4월 31.8%	83.5%	6.9
5월 41.1%	81.6%	5.1
6월 35.6%	79.7%	4.8
7월 36.3%	82.6%	5.5
8월 35.9%	82.3%	5.1
9월 34.9%	83.2%	5.5
10월 36.6%	85.6%	5.4
11월 42.5%	85.7%	6.3

※ 출처: 지지옥션



7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경매2계. 감정가 5억5800만 원의 해운대 재송동 더샵센텀파크 85㎡ 물건이 5억6315만 원에 낙찰되자 곳곳에서 탄성과 한숨이 터진다. 일부 응찰자의 얼굴에는 한껏 차이로 놓친 아쉬움이 역력하다. 1회 유찰로 최저 감정가가 4억50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던 이 물건에는 무려 24명이 달려붙어 눈치싸움을 벌였다. 이날 경매2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쟁이었다. 부산에서는 최근 고삐가 풀린 듯 아파트 값이 치솟고, 경매 시장에서는 유찰됐던 물건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간다. 이곳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짐작할 만하다.

1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부산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85.7%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88.3%)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다. 낙찰률도 올해 최고치인 42.5%까지 치솟았다.

해운대구는 이달 아파트 경매 응찰자가 평균 8.5명까지 오르며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건 한 건에 대한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더샵센텀파크1차 전용 85㎡ 물건을 비롯해 좌동 엘지아파트 60㎡ 물건 입찰에도 24명의 경쟁자가 붙었던 게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물건의 입찰이 진행됐던 7일 동부지원에서는 해운대·수영구 주거용 경매물건 12건이 전량 낙찰됐다.

특히 더샵센텀파크1차 물건은 낙찰가율이 101%였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건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들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낙찰가율은 경매 물건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가능하게

중요한 지표로 통한다.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는 게 아파트뿐만은 아니다. 동래구에서는 12일 입찰이 진행된 다세대 2건, 아파트 1건, 연립 1건, 주거용 오피스텔 1건 등 5건이 모두 팔려나갔다. 특히 두 번이나 유찰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물건들이 새 주인을 찾은 데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부산 경매시장의 주거시설들이 이처럼 싹쓸이 되듯 팔려나가는 건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라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동래·수영·해운대구는 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가 풀리는 건 물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청약 1순위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풀리는 셈이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규제 해제 3개구에서 그동안 유찰됐던 경매물건들이 낙찰된 게 부산 낙찰율과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은 규제의 족쇄가 풀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격이 급등하며 과열 논란이 일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넘쳐나면서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치솟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지난주 부산 집값은 0.1% 상승했다. 2017년 9월 이후 약 2년 2개월, 113주만의 반등이다. 규제가 풀린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가 모두 강세로 돌아섰다.

전문가들은 부산 주택시장에서 당분간 매수세가 계속되며 경매시장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면 경매 아파트 몸값도 덩달아 커진다.

오 연구원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최근 부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감정가가 싸다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무리”라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동산 ‘규제의 역할’

▶먼저 계속

정부는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후 해당 지역의 주요 아파트 가격이 며칠 새 5000만~1억 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국면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오히려 아파트 가격을 부추긴다고 입

을 모았다.

개포동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 가격이 올랐는데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책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장 가격이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둔촌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도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신축이나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강남에서 거래할 물량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S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매물이 없을뿐더러 호가가 올랐다”며 “매도자, 매수자 모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 매도자는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잡자는 분위기여서 (매도자-매수자 간) 줄다리기가 심하다”고 설명했다.

제조사 서로 달라도 통신·가전 통합 컨트롤 GS건설 스마트홈 ‘자이 AI 플랫폼’ 선보여

방배그랑자이 우선 적용 후 확대

“청소 모드로 바꿔줘.”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말을 하자마자, 커튼이 걷히고 조명이 밝아진다. 로봇 청소기도 거실 이곳저곳을 분주히 돌아다닌다. 인공지능 스피커와 커튼, 조명, 로봇 청소기의 제조사는 모두 제각각이다. 그런데도 이들 제품이 일상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이들을 지휘하는 ‘자이 AI 플랫폼’ 덕분이다.

GS건설이 21일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인 ‘자이 AI 플랫폼’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스마트홈 플랫폼이 예약 서비스, 조건형 서비스(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작동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중점을 뒀다면, 자이 AI 플랫폼은 각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한다.

자이 AI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호환성이다. 집 안에 있는 여러 스마트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KT·SKT 등 통신사, 카카오톡 같은 포털, 삼성전자·필립스 같은 전자 기업들과 두루 손을 잡았다. 자이 AI 플랫폼만 있으면 18개 회사 40개 제품을 각각 앱이나 플랫

폼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간편하게 이용·관리할 수 있다.

GS건설은 자이 AI 플랫폼의 관리 범위를 각 가구뿐 아니라 단지 전체로도 확대했다. 자이 AI 플랫폼은 놀이터 등 공용시설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 통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 미세 먼지 감지 기능을 통해 단지별 정확한 미세 먼지 수치를 각 가구에 알려줄 수도 있다.

GS건설은 자이 AI 플랫폼을 준비하며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 자이 AI 플랫폼이 모은 데이터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이 AI 플랫폼에선 보안 강화를 위해 단지 내 모든 통신이 암호화된다. 또 자이 AI 플랫폼에 접속하는 기기에 인증서를 넣어, 인증을 거친 기기만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은 자이 AI 플랫폼을 5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 우선 적용기로 했다. 기존 단지 가운데서도 2016년 이후 입주한 6만여 가구는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GS건설은 앞으로 자이 AI 플랫폼을 단지를 넘어 ‘스마트 시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박종화 기자 pbell@




11월 30일 행사종료

고객감사 이벤트! 마지막 찬스!!

반값 할인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풍성한 가을을 기원하는 프리미엄 할인 행사!!!



가정용

- 제품명 뉴아쿠아픽(리치) 도광형 AQ-300
-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 제품크기 150x60x210mm
- 백동수위 2,200회/분

휴대용

-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도광형 AQ-220
-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 제품크기 70x100x30mm
- 제품무게 44g(본체 26g, 충전기 18g)
- 백동수위 1,400회/분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

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6나이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 (4개의 세트팁)

- 고정형치, 임플란트, 보철물 등의 장치 용과 추천
- 분당 평균 약 2,200회 백동수위
- 구강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 기능성/편리성/안전성 모두 갖춘 뉴아쿠아픽
- 노년과 어린이도 쉽게 조작
- 수압 조절 가능한 디자인
- 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호스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14개국 안전인증)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 안전하고 편리한 휴대용 충전방식
- 2시간 완충 시 최대 20회 사용 가능
- 0.8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0g)
- 분당 1,400회 백동수위
- 어린이용 전용 세팅팁 설계
- 세가지 세팅모드
- NORMAL 일반적인 세팅모드
-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팅모드
- PULSE 잇몸 마사지 전용 모드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OCI, 폴리실리콘 특허소송 승소

재판부,獨 바커가 제기한 소송서 “특허 침해 증거 없다” 판결

OCI가 독일 바커와의 폴리실리콘 제조 공정 특허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염호준 부장판사)는 바커가 OCI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바커는 2017년 OCI가 태양전지용의 폴리실리콘 제조 과정에서 자신들이 특허를 가진 방법을 사용해 연간 400톤을 생산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커는 해당 방법으로 생산한 폴리실리콘을 폐기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바커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권리 범위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OCI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발명의 상세 설명에 의해 수

식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수식에 필요한 공정변수를 도출하는 데 필요한 측정 방법과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재불비의 위법이 있고, 진보성도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발명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폴리실리콘 제조에 적용되는 각종 공정변수를 대입해 계산되는 수치를 특정 범위로 한정해 발명하므로, 상세한 설명에 각 공정변수에 대해 명확한 측정 기준과 측정 방법이 기재돼야만 OCI의 실시 방법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SDR400(폴리실리콘 결정 성장)

반응기로 연간 400톤의 폴리실리콘을 생산한다는 전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OCI는 2007년 연간 생산 캐파 5000톤 규모의 군산공장을 건설한 뒤 제2, 제3 공장 증설, 2007년 도쿠야마 말레이시아 법인 인수 등을 통해 연간 7만 2000톤의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췄다. 중국, 대만,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등에 폴리실리콘을 판매하고 있다.

OCI 측은 소송과 관련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법”이라고 설명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12~3월 강력한 감축 정책 추진

서울시 ‘시준제’ 도입... 박원순 시장 ‘미특법’ 통과 촉구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준제’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준비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시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을 통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핵심 대책과 7대 상시 지원 과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준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부문 주요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다. 사업장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부문에서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확대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교통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준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준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됐다”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친환경보일러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등에 이어 미세먼지 시준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준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3월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base)를 낮춰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만 해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4%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미특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시준제를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게 어렵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만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경기·인천과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이번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 않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1월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라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진희 기자 jh6945@



철도파업 이틀째인 2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혼잡한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스

철도파업 이틀째 운행률 ‘뚝’... 수험생 비상

주말 절반만 운행 예정 화물 운송도 일부 차질

철도노조의 파업이 이틀째로 이어지면서 출퇴근길 시민의 불편이 점차 증가하는 모습이다. 화물 운송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주말에는 50%대까지 운행률이 떨어질 예정이라 국민 피해는 더 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에 따르면 철도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는 평시 대비 78.2% 운행 중이다. KTX는 76.0%, 일반 65.2%, 수도권 전철 86.1%, 화물 25.0% 수준이다.

평시 하루 162회 운행하던 경의·중앙선은 운행 횟수가 124회로 줄었고 서울과 춘천을 오가는 ITX 청춘열차 역시 하루 운행 횟수가 36회에서 21회로 줄었다.

22일은 주말과 이어지는 금요일이어서 열차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잡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운행률도 58~5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금요일 오후부터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KTX는 이미 대부분 매진돼 눈송시합을 치러 상경하는 수험생들과 한·아세안 정상회담 참석자 등 관계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화물 운송도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화

물처리량이 가장 많은 부산신항역과 부산진역은 파업 전에는 각각 하루 1100TEU, 750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지만, 현재 화물량이 30%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이날까지 누계 파업참가자는 7248명이고 15명이 복귀했다. 현재 파업참가자는 7233명이다. 이에 따른 파업 참가율은 28.9%(출근대상자 2만5042명)다. 대체인력(1668명)을 포함해 현재 1만9477명이 근무 중(평시대비 77.8%)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수송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항소심서 집유

재판부 “지위 이용 불법운전 강요”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사진·67)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4-2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를 회장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장한 강요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이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라는 주장은 받아들였다. 강요와 특가법을 실제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원심



주장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다.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범)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기소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대학 조교, 기간제법 적용 대상 아냐”

대법 “교육공무원 지위” 원심 파기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지위가 부여되는 대학교 조교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7년 국립대학교에 채용돼 홍보·기획업무 담당하다 2010년 근무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교’로 임용됐다. A 씨는 매년 재임용돼 조교 직책을 갖고 대학의 홍보·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2014년 대학 총장은 ‘조교’인 A 씨의 임용 기간이 만료됐으며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홍보·기획업무만을 담당했고, 학업을 병행하거나 연구 보조를 수행한 사실이 없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해 왔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원고에 대한 당연 퇴직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에서는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실제 취득했는지 추가로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임용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당연 퇴직 통보가 단지 근무 기간 만료 사실에 대한 단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 학장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된다”며 “교육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가 조교로 임용되면서 국가공무원의 지위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심도 원고가 조교 임용 이후 1년 단위로 재임용 사실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소멸·흔적 그리고 생태... 중진작가들의 '개념미술'

알아두는 전시 tip '배종현·허구영展' 내년 1월 5일까지 아르코미술관

대구와 대전 지역에서 '개념미술'을 토대로 활동하고 있는 중진작가의 2인 전시가 개최된다. '소멸'과 '흔적' 그리고 '생태'를 화두로 한 회화, 설치, 텍스트 작업들이 소개되는 자리다. 1990년대 개념미술을 토대로 발전시킨 두 작가의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볼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2019년 아르코미술관 중진작가 시리즈로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배종현과 대전에서 활동하는 작가 허구영의 전시를 2020년 1월 5일까지 대항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연다. 아르코미술관의 중진작가 시리즈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동시대 시각 예술계의 중진세대 작가들을 조명하고, 신작 제작을 위한 창작 환경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올해는 미술관의 특별 개인전이자 전체 2인전으로 진행된다.

배종현, 자연현상으로 생긴 흔적 사회문화적 '현상·이슈'로 확장

◇흔적과 균열에서 발견한 '그것' = 아르코미술관 1층 제1전시장에서는 배종현 작가의 '미장제색(美匠霽色)'을 선보인다. 전시의 내재적 부제는 '어느 반지하 생활자의 산수유람'이다.

작가는 '일상의 경험을 사회적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무용하고 소멸의 위기에 처한 사물과 도구를 재해석하거나, 자연현상으로 생긴 흔적과 균열에 새롭게 철학의 의미를 부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과 이야기는 사회문화적 현상과 동시대 이슈로 확장된다. 이를 위해 소소한 일상의 사물과 현상은 독창적으로 재해석되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물결이 양산한 물질적, 정신적 폐단들은 은유적으로 드러났다.

내재적 부제에 걸맞게, 작가는 현대인의 구조화된 폭력성이 자연에 기한 흔적을 '산수화'로 변모시켜 자연에 대한 그리움, 낭만적 정서의 회복을 위한 실천적 실험을 보여준다. 대표적 작업으로 시멘트 칠을 하는 미장이의 '미장'을 산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시멘트 벽에 생긴 흔적과 균열을 비운 뒤 맑게 갠 미장산의 모습으로 재현한 대형 회화작업 미장제색을 선보인다.

터널 안의 흔적을 자연의 경치로 그려낸 '터널 산수'와 영상설치 신작, 구름 형상을 포착해 재해석한 '구름 산수', 콘크리트 벽면의 균열을 산수로 표현한 '콘크리트 산수' 등 일상에서 마주한 현상들을 다종다양한 산수화로 치환하는 작가의 상상력과 섬세한 재현 방식들이 전시를 이룬다.

허구영, 기존 작업들 조합·분해·조립 정체되지 않으려는 욕망 역설적 표현

◇작품을 해체해 작품을 창조하다 = 아르코미술관 2층 제2전시장에서는 허구영 작가의 '여전히 나에게 뜨거운 이미지 중 하나'를 선보인다.

허구영 작가는 그동안 작품의 장르화, 대상의 타자화에 대한 경계심을 근간으로 매체 간의 전이, 전환,



배종현, 절골입구N1-01 콘크리트 균열과 생채기, 얼룩, 그리고 껌딱지로부터, 2019, 자작나무 합판에 유화, 70x120cm. 사진제공 아르코미술관



허구영, 두 조각 - 피랑, 노랑, 빨강으로부터, 2019, 면천에 드로잉과 아크릴, 스프레이 페인트, 65x53cm

간섭이 발생시키는 감각과 개념의 다층적 관계를 탐색해왔다. 이를 위해 선보인 작업들은 차용과 오마주, 자기 참조 작업을 비롯하여 회화, 설치, 영상, 텍스트, 월드로잉이 서로에게 관여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90년대 이후 한국미술의 흐름에 나타났던 개념미술의 경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브제의 비물질화에 대한 관심을 주축으로, 사물의 재해석, 무용한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권위적 장르화에 대한 저항적 태도를 작업으로 치환해 정체된 미학, 나아가 미술 자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예술적 수행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든다.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는 상기한 이전 작업들과 그 태도의 연결성 안에서, 재료와 형식의 순환적 구조를 통해 모두 새롭게 변주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은 기존 작업들과의 조합, 분해, 조립으로 또 다른 맥락에 놓이고, 전시에 펼쳐진 작업들은 모두 또 다른 시점을 위한 매장된 물질이 된다.

전시명 '여전히 나에게 뜨거운 이미지 중 하나'도 이전에 선보인 작품명을 그대로 가져와, '여전히'가 시간의 축을 따라 지속적으로 생성, 변형되며 갖는 유효한 지점을 모색하고, 동시에 정체되지 않으려는 욕망의 역설적 표현을 전시로 구현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뜨거운' 이미지가 지니는 생동감을 현재 작가를 구성하는 모종의 정체 중 일부로 간주해 단순한 회상이나 퇴행을 벗어나고자 한다.

사물서 얻은 단상 시각예술로 승화 신작 비롯 아카이브·드로잉도 선포

◇'개념미술'을 만나다 =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가 공통적으로 지속해왔던 관심사인 '소멸', '흔적', '환경', '생태'를 화두로 한 두 작가의 최근 작업 경향을 일괄하고, 새로운 작업을 소개한다. 특히 두 작가는 일상의 사물 혹은 현상에서 얻은 이미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다매체 설치 및 회화, 텍스트 등으로 시각화해 온 만큼 작업을 통해 일상에 스며든 자연의 흔적, 시간의 흐름을 대하는 작가들의 사유의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업은 모두 구작 변형 혹은 신작으로, 주변 환경이나 사물에서 얻은 단상을 시각예술로 재해석하고 환경, 생태라는 동시대 사회적 이슈를 토대로 소멸, 시간성 등 비가시적인 요소들을 존재화하기 위한 회화와 영상, 오브제 설치 작업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언어와 텍스트, 개념 자체를 시각예술의 주요 요소로 개입시켰던 두 작가의 텍스트 및 아티스트북 신작을 비롯해 배 작가의 아카이브, 허 작가의 아르코미술관 장소 특정 드로잉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아르코미술관은 전시 연계 행사로 두 작가와 함께 하는 '작가와 대화'(12월 21일 오후 2시)를 비롯해 전시를 개념적으로 살펴보는 심층 강연(12월 14일 오후 2시), 큐레이터 전시 안내(11월 27일 오후 7시) 및 연말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김소희 기자 ksh@

작가 재수생 시절 그린 '수능일기'·병맛 코믹 스킬러 '닭강정' 웹툰, 그림체 단순해도... "매력있네"

웹툰은 작가만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그림체를 볼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이자 장점이다. 플랫폼에 등록된 웹툰 섬네일을 훑어보면, 화려하고 멋진 그림들로 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끄는 작품을 볼 수 있다. 반면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그림체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작품도 있고, 단순한 그림체임에도 독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작품들도 있다.

21일 네이버웹툰을 통해 단순한 그림체로도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웹툰을 소개한다. '일유 메리미(글·그림 마인트)'와 '노곤하게(글·그림 흥기)'를 이으며 주목받고 있는 신작 '모조의 일

지(글·그림 모조)'는 머리에 이상한 뿔이 달린 채 동물인지 사람인지 모를 작가가 자신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려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탔다. 최근 완결한 작가의 재수생 시절을 그린 '수능일기'는 많은 수험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그림체 탓에 단순한 내용의 만화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치밀한 스토리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들도 있다.

최근 시즌1 연재를 마친 웹툰 '오늘의 순정만화'는 독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개와 반전으로 언제 어떤 떡밥(힌트)이 숨어있을지 모를 흥미진진한 웹툰,



웹툰 '수능일기' 일부. 웹툰 '모조의 일지'.

'순정만화답지 않은 순정만화'라는 평을 받았다. 네이버웹툰 시상최대공모전 수상작 '닭강정(글·그림 박지욱)'은 병맛 코믹 스킬러 장르로 '뭐가 재미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재미있다', '이상하게 계속 쿠키를 굽게 된다(유료결제를 하게 된다)', '그림체도 계속 보다 보니 좋아졌다' 등의 반응을 얻었다.

특히 '닭강정'은 사람이 닭강정으로 변했다는 독특하고 기발한 소재로 주목을 받았다. 어느날 의문의 기계로 인해 주인공이 짝사랑하던 회사 사장의 딸이 닭강정으로 변해버리고 이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을 유쾌하게 담았다. 그림체는 단순하지만 개성 있는 내용과 흥미진진한 전개로 연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요웹툰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사람을 원상대로 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한껏 자극한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은 작화뿐 아니라 개성 있는 그림체나 독특한 소재,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 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ksh@

“나가 놀라”던 배추머리 아저씨 이젠 강단서 “공자 가라사대~”

김병조 조선대학교 특임교수

나른한 퇴근길,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를 보고는 자동으로 인사했다. 생각해보면 그는 어린 시절을 함께한 참 오랜 친구였다. 뽀뽀 체조로 아침잠을 깨면 항상 볼 수 있던 ‘뽀뽀’였고, 주말 밤에는 두루마기나 정장을 입고 앵커석에 앉아 “지구를 떠나거나~” 혹은 “나가 놀아라~” 같은 유행어를 쉴 새 없이 제조하던 웃긴 아저씨였다. 우리나라 시사풍자 개그의 효시이자, ‘명심보감’ 전도사, 조선대학교 김병조(金炳朝·69) 특임교수다.

가난한 선비 집안의 장남 벋 삼던 명심보감 소재로 시사 개그 톱스타 반열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서울역사에서 김병조 교수를 만났다. 지방 강연이 있는 날이면 용산역이나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한다. 인터뷰가 있던 날도 대구가톨릭대학교에서 강연이 있다고 했다. 개그맨에서 교수로 직업의 영역은 달라졌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명심보감과 함께한다는 점이다.

“방송하던 시절에는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코미디를 만들고 싶었어요. 마침 제 뜻에 공감하고 좋아하는 피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방송도 공익을 위한 것이니 교육 기능을 강조해야 한다던 분이셨죠. 고전에서 취득하자고 해서 명심보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까지 제 평생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알개

선비 집안의 장손인 김병조는 어려서부터 벋 삼던 ‘명심보감’을 개그 소재로 삼았다. 작가가 써주는 것을 기다리기보다 아이디어를 발굴해 글을 쓰고, 시사 개그의 앵커 멘트를 고쳤다. 짧고 간결하지만, 속 시원하게 끊어주는 이야기에 많은 시청자가 귀 기울였다. 그가 진행했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은 7년 동안 평균 70%의 시청률을 기록한 시사 풍자 프로그램이었다.

“제 대부분은 거의 다 제가 썼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청중 앞에 섰는데, 그 끼는 타고난 것 같아요. 먼 단위 동네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사회도 보고, 응원 단장도 하고, 웅변대회에서 상도 타고 말이죠. 아주 오랜 경험이 쌓여 있었으니 사람들을 웃길 자신이 있었어요. 작가가 써준 대본을 수정할 경우 양해는 구했죠. ‘내가 고쳤는데 만약에 대사가 재밌고 유익하면 용서해 달라’고요. 작문에도 재능이 있었거든요. 개그맨은 작가적 소양을 지닌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전신인 서울예술대학에 진학했다. 원래는 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하던 우등생. 어려운 집안 형편에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에 가야만 했다.

“육사에서 장학금 받을 정도면 연극영화과 학교에 가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영화와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후 1학년 1학기 때 과 수석을 제외하고 4년 내내 학년 수석을 했습니다. 장학제도도 다양하지 않던 시절 전액 장학금을 받을 방법은 학년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뉴스 형식의 시사풍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자양분이 됐습니다.”

김병조의 단골 이야기는 한학자 아버지와 가난에 대한 내용이다.



‘역대 광고모델’ ‘시청률 제조기’로 화려한 때를 보냈던 김병조 교수, 지금은 그 시절을 뒤로하고 ‘명심보감’과 벋 삼아 살아가고 있다. 사진/오병돈 프리랜서 obdlife@gmail.com·장소제공/더하우스1932

유명인의 삶보다 덕망에 관심 힘든 시절 있기에 행복했지만 정당 행사장 野僻휘 발언 곤혹

“저는 스타가 될 사람이 아닌데 스타가 된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덕망 쌓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가난한 선비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제 행복의 비법은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귀이망천자불구(貴而忘賤者不久), 사람들은 성공하면 어려운 시절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배추 머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김병조는 방송 활동 내내 톱스타 중에서도 톱스타였다. 광고모델로 역대 출연

료를 받은 연예인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학을 바탕으로 시청자를 배꼽 잡게 하는가 하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람들을 들었다 놔다하던 이. 말 그대로 김병조 전성시대였다.

그날 이후, 다른 삶을 살다

1987년 6월 10일. 이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진일보했다. 김병조는 이날의 사건으로 삶을 정리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당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로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이었어요. 정당 측에서 코미디를 잘 모르니까 저한테 한 3분 정도 웃길 내용을 적어오라고 하더군요. 대본을 써가지고 보여줬더니 거기가 될 뻔도 적어주더라고요.”

거기에는 집권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폽하는 발언이 들어 있었다. 단 몇 초 분량의 내용이었지만, 읽어야 할 사람이 김병조라는 게 문제였다.

“대본을 읽기 전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과감하게 ‘못합니다’ 하고 거절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비 집안의 장손답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았어야 해요.”

당원들끼리 하는 내부 행사라서 방송 전 파를 타지 않았지만 한 일간지에 그가 한 말이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사건이 커져 버리고 말았다.

“자숙의 기간이 필요해 방송을 쉬고 싶다고 했는데 쉬는 것조차 어렵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방송계에서 퇴출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스스로 관둔 게 맞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정치권의 제의도 있었습니다만 다 거절했습니다.”

SBS가 개국하면서 자리를 옮긴 김병조

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성기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미 방송에 대한 매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마침 그때 KBC 광주방송이 개국했습니다. 노래자랑 프로그램 ‘열창 무대’ MC를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잘됐다! 고향의 방송을 하자!’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에서 강의 요청도 해왔고요.”

조선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지도 벌써 23년째다.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두루 다니며 강의를 해왔다.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그의 모습이 시청자들 눈에서 서서히 멀어져간 과정은 그러했다. 몇 해 지나고 개그맨이 아닌 대학교수가 되어 나타난 그는 어딘가 모르게 많이 달라져 있었다. 젊은 시절 흑발의 보글보글하던 머리카락은 단정한 커트의 은발이 됐다. 푸짐해 보이던 몸은 마라톤으로 다져 보통의 건강한 체격으로 변해 있었다. 그 시절 그 사건의 스트레스로 오른쪽 눈은 결국 실명됐지만 그래도 사는 데 불편함은 없다고 했다.

아들, 손자, 며느리와 함께 ‘시래기톡’

요즘 김병조가 강의 외에 집중하는 건 바로 작년 10월부터 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이다. 카카오톡TV와 유튜브에 ‘시래기톡’이라는 채널을 개설해 아들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왜 방송 이름이 ‘시래기톡’일까. 파릇파릇했던 배추 머리가 세월이 흘러 묵직하고 담백한 맛과 향을

방송 떠난 이후론 강의생활 최근 유튜브 시래기톡 채널 쫄대있게 가난한 삶 살고파

내는 시래기로 탄생했다는 의미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다가 살아생전의 목소리가 녹음된 카세트테이프를 발견했어요. 산소에 모시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차에서 카세트테이프를 들으면서 영영 울었어요. 제가 올해 칠십인데 아버님이 일흔둘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나이가 서서히 되어가시네’ 하더라고요. 뭔가 남기고 싶었나 봐요. 아들의 생각과 명심보감 구절을 포함해 젊은이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눈으로 보지 말고 상대의 눈으로 보고 다름을 인정하자”가 시래기톡에서 추구하는 의미란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을 통한 한학의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런 의미 있고, 온고지신(溫故知新) 같은 방송도 있어야죠. 훌륭한 일을 하고도 대우받지 못하는 어른 세대와 희망과 꿈이 있음에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제 유언이기도 합니다. 남기 유(遺), 말을 남기는 것이죠. 먼 훗날 세상을 뒤흔을 때 아들이 ‘우리 아버지의 철학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웃음)”

아버님이 카세트테이프에 목소리를 남겨놓은 것처럼 그의 이야기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나 같은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가 제 철학입니다. 진부수 같은 삶을 살고 싶죠. 가식과 허황한 사람이 주목받는 세상에서 있어도 없는 듯 낮추고, 쫄대 있는 가난을 선택하며 살고 싶습니다.”

권지현 기자 9090ji@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 하는 금융

누구나 언제나 행복한 금융!
당신이 원하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는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선물 NH농협카드



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라이프 농업·농촌·농협에서 즐기세요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 NH 농협

“타다는 혁신산업 바로미터... 사법부 신중한 판단을”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벤처 불씨 다시 살려야”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은 필연적... 사회적 합의과정 필요 벤처법·IFRS9 가이드라인·전문인력 확충 등 주요 과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나올 때 전통 산업 사업자(종사자)와의 충돌이나 마찰은 필연적이다. 새로운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1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만난 정성인 협회장은 최근 타다 사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이어질 혁신 서비스들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우버나 리프트 등 새로운 형태의 승차 공유 서비스를 택시와 같은 운수업의 테두리 안에 두지 않았다. 제3의 범주인 교통네트워크 회사(TNC)로 규정된 뒤 주마다 각자 규제를 만들어 우버나 리프트 등 승차 공유 업체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랩’의 본고장인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초기에 승차 공유 사업을 합법화했다.

정 회장은 1981년 국내 첫 벤처캐피탈(VC)인 한국기술개발(현 KTB네트웍) 1기 공채로 출발해 외길을 걸어온 인

물이다. 2005년부터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올해 초 벤처캐피탈협회 13대 회장직을 맡았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인재들이 계속 나와 줘야 하는데 (이번 일로 점차) 안정만 추구하는 사회가 될까 걱정이다”면서 “혁신 산업은 리스크가 크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성공했을 때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도 있다.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답이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기존 종사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이를 조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하는 지금의 벤처정책은 ‘아니면 말고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 깊게 좀 더 멀리 보고 사태를 풀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기존 산업 보호와 새로운 산업 육성을 놓고, 혁명이나 정체가 아닌 중간 점을 찾아야 한다”며 “일률적으로 ‘0.5(중간 점)’가 아닌 각 분야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1989년 출범한 협회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연간 미미한 수준을 보이다가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을 맞으면서 2조 원을 넘어선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침체가 지속됐고 2015년에 들어서야 2000년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4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정 회장은 이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벤처의 불씨를 살리려면 정부의 인프라 조성과 민간투자 유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현안으로 △연내 벤처투자 촉진법 통과 △새 회계기준인 IFRS9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인력 확충 등 3가지 과제를 꼽았다.

그는 “현재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는데 지금의 환경에서 투자를 국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협회 숙원사업인 벤처법으로 이를 일원화하면 규제와 관련한 많은 내용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IFRS)9의 경우 스타트업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가치만 인정하고, 여러 회계법인이 중복 평가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가 있다”면서 “일정한 기간은 비상장사 밸류에이션을 투자원으로 평가해주는 유립의 사례를 참조해 금융당국, 공인회계사회,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벤처투자 금액이 최근 3년간 30%씩 증가했지만, 심사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벤처캐피탈은 규모의 경제가 아닌 전문성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연간 100~300명이 총원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요청 등 대내외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샘, 사랑의열매와 협약 취약계층 지원금 5억 쾌척

한샘이 연말을 맞아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한샘은 서울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15일 진행된 협약식은 한샘의 주요 사업장 소재지는 물론 전국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한샘은 연간 5억 원 규모의 성금을 경기사랑의열매에 전달한다. 이 성금은 한부모가정을 비롯한 전국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사업 및 의료비·생계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소방청과 함께 각 지역별 소방본부 및 동우회를 통해 순직 소방관 가족을 위한 차립이불 총 650세트를 기부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권모세 세계투데이 발행인 “공정사회 건설에 일조할 것”

세계미디어그룹이 ‘세계투데이’, ‘세계경제뉴스’, ‘아시아뉴스’, ‘ST뉴스’를 창간했다.

권모세 발행인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공정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미디어를 만들고자 세계투데이, 세계경제뉴스, 아시아뉴스, ST뉴스를 창간했다”고 밝혔다. 권 발행인은 “공명정대한 뉴스로 신뢰성 높은 고품격 언론사가 되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성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원장원 경희대병원 교수

대한노인병학회 이사장에 선임

경희대학교병원은 가정의학과원장원 교수가 대한노인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됐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원장원 교수는 “혁신적인 학술연구와 다양한 대외 활동, 차세대 인재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콘크리트시험원 부원장에 여취구 씨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18일 부설 한국콘크리트시험원 부원장에 여취구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21일 연합회에 따르면 여취구 신임 부원장은 1959년생으로 홍익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그 뒤 국가기술표준원 기계건설표준과와 적합성정책과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장 등을 역임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故 조양호 한진 前회장 ‘벤 플리트 상’ 수상

한미경제회의의 위원장 등 역임 양국 경제교류 기여 공로 ‘장남’ 조원태 회장 대리 수상

4월 별세한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벤 플리트 상’을 수상했다. 고인이 수상한 것은 이상이 제정된 이후로 처음이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터티’는 20일(현지시간) 저녁 뉴욕 맨해튼의 플라자호텔에서 연례만찬을 개최하고 벤 플리트 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벤 플리트 상은 미8군 사령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1957년 코리아소사이터티를 창립한 제임스 벤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1995년 제정된 상이다. 매년 한미관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어진다.

고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경영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경제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했다.

1998년 외환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보잉사의 항공기 27대 구매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잉은 계약금을 낮추고 구입에 필요한 금융을 유리한 조건으로 주선해 주는 등 한-미 기업 간 우호 협력의 선례가 됐다. 또 미국 델타항공과 함께 대한항공을 포함한 에어프랑스,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대신해 ‘벤 플리트 상’을 받은 조원태(사진 가운데) 회장. 양 옆은 코리아소사이터티의 토머스 허버드(오른쪽) 이사장과 토머스 번 회장. 사진제공 한진그룹

아에로멕시코 등 4개 항공사가 참가한 항공동맹체 스카이트임을 출범시켰으며, 델타항공과의 우호 협력을 기반으로 지난해 5월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를 시작, 양 항공사의 동반 성장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고 조양호 회장은 2017년 L.A. 중심가에 높이 335m, 73층 규모의 1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월서그랜드센터를 개관하여 L.A.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및 관광 수요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에도 그는 한-미 양국의 민간 경제 협력 채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경제회의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양국 경제계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

장이 아버지를 대신해 참석했다.

조원태 회장은 전날 뉴욕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 관계 개선에 노력한 사람에게 주는 상으로 알고 있다”면서 “명예롭고 뜻깊은 상을 대신 받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단체로는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 보잉이 선정됐다.

코리아소사이터티 측은 “조양호 전 회장은 물류 산업을 통해 양국 간 교류를 증진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미경제회의의 위원장을 지내면서 한미 경제동맹을 강화하는 데 헌신했다”면서 “보잉은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파트너 역할을 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에이스침대 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 매트리스 실험 장면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 에이스침대

에이스침대, 중고교 학생 공장 견학 프로그램 실시

에이스침대가 12월 24일까지 전국 30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에이스침대는 침대업계에서 유일하게 정규 공장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5년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에이스침대 총복 음성공장을 방문한 누적 방문 학생 수는 8만8000여 명이다.

에이스침대 공장 견학 프로그램은 △국내 침대 업계에서 유일하게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침대공학연구소 탐방 △업계 1위 에이스침대의 첨단 자동 생산 시스템 체험 코스 △국내 재활의학 1호 박사인 문재호 교수가 진행하는 ‘척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자세’ 강연 등으로 구성됐다. 김정용 기자 cogito@

인사

◆법무부 <4급 임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윤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국제관광과장 김경화

◆부산일보사 △논설위원 이준영 △논설위원 임광명 △편집부장 이병국 △경제부장 이상운 △문화부장 김중균 △라이프부장 정달식 △정치부장 서준녕 △사회부

장 김수진 △해양수산부장 이호진 △사진부장 이재찬 △디지털에디터 이재희 △독자부장 천영철 △시스템지원부장 이용섭 △문화사업부장 장재원 △기획사업팀장 이종호 △광고1부장 유정민 △디지털기획부장 김진성

◆한국증권신문 △발행인 대표이사 최형일 △편집인 겸 편집국장 김형기 △산업부장 부국장 이형교 △광고마케팅국장 송원철

부음

▲김용수 씨 별세, 김형락(동화이텍 연구소장)·미정·희정·선정 씨 부친상, 박용우(사업)·김호정(에쓰오일상무)·김범수(대림산업 부장) 씨 장인상, 장승희 씨 시부상 = 21일, 경북 안동시 수상동 안동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054-840-0030

▲박인규(전 무림제지 부사장) 씨 별

세, 박임선(홍대부고 교사)·자현(신능중 교사) 씨 부친상, 최경석(대원고 부장교사)·정연철(MBC 차장) 씨 장인상 = 20일, 고려대의료원 안암병원 장례식장 202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70-7816-0235

▲안장환 씨 별세, 안경덕(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씨 부친상 = 20일, 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8시 30분, 033-258-9402

조석의 遠見明察

(원건명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지식경제부 차관

‘게으름뱅이에게는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들이닥친다’는 성경 구절이 있듯이 부지런한 삶과 그것을 통한 경쟁력이 필요한 각자 도생의 시대. 대한민국이 살아남으려면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주의 질서인 ‘코스모스’다.

가을의 끝자락에서 코스모스를 생각한다. 추석 무렵 코스모스 꽃 사이를 날고 있는 고추잠자리를 보면서 평화로운 감상을 가졌던 기억이 있다. 코스모스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꽃이다. 코스모스(cosmos)는 질서 정연한 우주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E. Sagan)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그의 역작 제목을 ‘코스모스’라 했다. 그리고 이 작품과 같은 이름의 텔레비전 시리즈를 통해 많은 미국인에게 과학과 우주를 생각하고 이해할 시간을 갖게 했다. 그는 “과학 기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과학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확실한 처방”이라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학 기술의 불편한 진실에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다. 지난 60년 한국 경제의 기적적인 발전은 우리 모두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과학 기술과 그것을 이용한 개발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는 데에서 위기 극복이 시작된다고 설파한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접어든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경쟁력만이 우리가 살길이다.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초 과학을 존중하고 공부를 하는 과학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육성하려는 조급함을 버리고 긴 호흡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대학의 자율성 극대화, 연구 성과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 등 원칙에 충실하면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로는 소재, 장비, 소프트웨어 등 미래의 먹거리를 키워 나가야 한다.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산업의 국제 경쟁력, 세계 일류상품 등의 용어를 듣기가 어려워졌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자동차,

코스모스

선박,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이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것들이 국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이 존중받아야 하고, 본사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아야 한다. 기술력 있는 엔지니어가 회사의 경영 책임자가 되어야 하고 국가 운영도 과학과 기술에 근거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과학 기술의 융성만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 주고 있다. 세 번째로는 공정한 사회를 통한 상호 존중이다. 압축적 경제성장의 시간을 지나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개인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수록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해진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 공정함의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무엇이 공정한

지는 만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함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결정할지이다. 각자가 공정함을 외치다가 모두가 낮아져서 세계에서 뒤쳐질 수는 없다. 기계적 평등이 아닌 경쟁력 있고 생명력을 갖춘 공정함이 필요한 이유이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전인 성경에도 “게으름뱅이에게는 가난이 부랑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들이닥친다”는 구절이 있다. 부지런한 삶과 그것을 통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자는 목소리 못지않게 잘 살자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 경쟁력 있고 잘하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 한다.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도, 펜을 들고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도 모두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주의 질서인 코스모스이다.



전정일의 식물과 함께 하는 시간

신구대 원예디자인과 교수·신구대식물원 원장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영하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요즘, 식물원에서는 겨울 준비를 하느라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을 맞는 식물원에서는 차고 건조한 겨울바람으로부터 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들이 우선입니다. 겨울을 견딜 힘이 부족한 나무와 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은 실내로 들여놓고, 들여놓을 수 없는 아이들은 벚짚이나 녹화매 등의 피복 재료를 이용해 줄기나 토양 표면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또 다른 겨울 준비로 식물원이 무척 바쁘습니다. 겨울 동안에도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꽃빛축제’라는 이름으로 식물원을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 모양, 동물 모양 등으로 조명을 설치해 겨울 식물원의 식막함을 견어내고 마치 봄에 꽃이 핀 것 같은 모습으로 식물원을 비춰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도 바람에 쓰러진다

식물을 보호하는 일과 관람객들이 즐겨 위할 장식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식물원에서 식물을 보호하는 일이 우선일까, 관람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선일까. 제한된 시간과 비용, 인력으로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는 날들입니다. 이렇게 식물원을 장식하다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줄을 매어 꽤나 무게가 나가는 조명 전선을 길게 늘어뜨리기도 하는데, 그 무게에 나무가 쓰러질 것 같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나무에 걸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현수막부터 무거운 철로 만든 줄까지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나무를 지지대 삼아 설치합니다. 이런 설치물들, 특히 나무줄기나 가지를 꼭 조여 매는 줄은 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우리는 보통 나무의 덩치만 보고 나무들이 무척 튼튼하고 굳세어 어떤 충격이나 상처에도 모두 견딜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매우 섬세한 반응을 보이는 생명체입니다. 나무의 생장을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줄기가 두꺼워지는 부피생장을 할 때 나무는 새살을 줄기 중심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껍질 바로 밑에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되고 굳어진 살이 줄기 안쪽에 있고 연약한 새살이 가장 밖에 있는 것입니다. 줄기나 가지에 매어진 줄이 제거되지 않고 오래 남아 있게 되면 그 부분은 부피생장을 못하고 잘록하게 약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잘록해진 부분은 결국 죽게 되고 약한 바람과 같은 가벼운 충격에도 부러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으면 미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무가 툭 부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느다란 실 같은 줄조차도 이런 과정을 통해 나무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을 보면, 나무껍질이 다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껍질

은 앞서 말한 새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껍질의 두께가 나무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껍질이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껍질에 상처가 생겨 보호기능을 잃게 되면, 바로 그 밑의 새살도 영향을 받아 썩기 시작하고 점점 더 안쪽으로 썩어 들어갑니다. 겉에서 볼 때는 작은 상처지만, 줄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썩은 부위가 커지고 큰 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나무들도 어느 날 비바람과 눈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 첫 머리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뭉세’라고 해서 기초가 튼튼함을 나무에 비유하였지만,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도 부러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뿌리가 튼튼하지만 흑사라도 가지와 줄기를 옥죄거나 껍질에 상처를 주고 있는 장애물은 없을까요. 흑사라도 내가 우리의 가정, 직장 그리고 사회에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사를 드골 명연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 프랑스의 군인·정치가. 2차 세계대전 후 드골 체제를 완성시켜 ‘위대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민족주의를 부흥하기 위해 주체적 활동을 전개했다. 알제리 독립 가결로 알제리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했다. 오늘날 그의 생일. 1890~1970.

☆ 고사성어 /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전기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 흥광성소는 반복되므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원전은 당시(貞節). 중국 최초의 여황제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중종이 친정(親政)할 나이가 되어도 물러나지 않자, 소인환(蘇安祖)이 올린 상소에 서 유래했다. “무후께서는 아직까지는 섭정의 자리에 계시지만,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하고, 그릇도 가득 차면 넘친다(物極必反 器滿則覆)는 이치를 아셔야 합니다.”

☆ 시사상식 / OOTD
오늘 입은 옷차림, ‘오늘의 패션(Outfit Of The Day)’의 줄임말. 당일이나 특정 상황에서 입은 자신의 옷차림을 촬영해 소셜미디어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의무뿐 아니라 액세서리 등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기록한다.

☆ 속담 / 봄별은 며느리를 찌고 가을 별은 딸을 찌인다
시아머니는 며느리보다 딸을 더 아끼고 위한다는 뜻이다. 가을별보다 봄별에 살갓이 더 잘 타고 거칠어지기 때문이다.

☆ 유머 / 동상이몽
젊은 남자가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아무도 없었다. 여자가 “정상에 왔는데 그냥 갈 수 없잖아?”라고 하자 남자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눈을 감고 남자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던 여자에게 남자가 “자긴 안 할 거야?”라고 하자 “그냥 자기가 하면 되지 뭐?”라고 대꾸했다. 그러자 남자는 양손을 입에 대고 건너편을 향해 소리쳤다. “아~호, 아아~호!”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세대론’이 다시 뜨겁다. 한양대 총학생회장장과 전대협 의장을 지낸 그는 이른바 ‘86세대’의 대표주자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스스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지만, 여론의 관심은 ‘86세대 용퇴론’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내년 총선에서 2030세대를 대표할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기 위해 오랜 기간 득권을 지킨 86세대가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타깃이 된 86세대 정치인들은 억울한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일도 있다. 별 잘못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인적쇄신 대상으로 취급

기자수첩



유 중 현 정치경제부/lamuziq@

용퇴론에 발끈한 86세대

되고 있으니 속상할 만도 하다. 하지만 86세대의 ‘정치적 데뷔’를 생각하면 그들이 세대로의 부당성을 말하는 것이 다소 옹색해 보인다. 86세대가 정치판에 등장한 시기는 20년 전인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론’을 통해서

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의 주축을 이루는 그들은 당시 30대의 나이에 정치일선에 등장해 지금까지 한 번도 국내 정치의 핵심 축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어떤 의원은 더 나아가 “인위적 인적쇄신은 필요없다”고 말한다. 경선 시스템이

이미 청년·여성·신인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이 경선을 통해 자리를 따내라는 것이다. 말이 쉽지 설득력은 높지 않다. 조직력의 대결인 경선에서 정치 신인이 수십 년 경력 정치인을 상대하리란 어려운 일이다. ‘86세대가 능력은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는 이도 있다.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라 설득력이 더욱 떨어진다. 혹독한 스펙 경쟁의 정글을 지난 2030세대의 능력이 지금의 50대보다 부족할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한 시대를 풍미한 86세대의 퇴장이 ‘용퇴’가 될지, ‘명퇴’가 될지, ‘해고’가 될지는 그들 스스로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대표전화	(02)799-2600
자본시장1부 (02)799-2647	자본시장2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팩스	(02)784-1003
산업부 (02)799-2644	중기IT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이슈&인물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강자

여은석 메리츠증권 전문

“부동산PF, 국내 넘어 글로벌 1위 될 것”

최근 수년간 국내 증권사 IB 부문의 성장을 이끌어온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다. 부동산 PF란 부동산 개발사업의 미래수익을 담보로 건설사에 돈을 직접 빌려주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등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특히 메리츠증권(이하 메리츠증권)은 해당 분야에서 업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성과를 이끌어 내고 있는 인물은 여은석 메리츠증권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전무)이다.

그가 수장으로 있는 프로젝트금융사업 본부는 회사 실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IB부서 중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본부는 지난해 61개에 달하는 주선 계약을 맺어 관련 자금 조달 규모가 5조 709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 28개의 주선 계약을 맺어 3조 원가량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투데이는 최근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사옥에서 ‘프로젝트금융의 강자’로 불리는 여 전무를 만나 업계 1위의 성과 비결과 앞으로 메리츠증권의 부동산 PF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업계 1위 비결은? “뛰어난 사업성 분석 능력” =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사업성이죠.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도시에 공급될 땅이 없다면 외곽의 땅을 잘 판단해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는 게 투자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죠.” 여 전무는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사업성’을 강조했다.

그가 사업성에 대한 중요도를 느끼게 된 프로젝트는 2016년 ‘독산동 우시장’ 개발사업이다. 우시장 근처라 PF를 주저하는 곳들이 많았지만 여 전무는 오로지 ‘사업성’만을 고려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는 “그때만 해도 독산동 아파트 개발 사업이 잘되겠냐는 주변의 우려가 많아서 날씨가 좋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수시로 현장을 찾아가 보곤 했다”며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는 순간 청약경쟁률이 10대 1이 나오면서 한 번에 분양이 마감됐는데 지금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라고 회상했다. 이어 그는 “독산동 개발 사업 이후로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게 됐다”며 “건설사는 책임 준공을 하게 하고 우리가 파이낸싱을 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메리츠증권의 프로젝트금융본부는 건설사, 시행사, 은행 등에서 전뺨가 굵은 25명의 팀원들로 구성된 3개 팀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여 전무와 함께 수시로 토론을 통해 각자의 영역을 살려 부동산의 사업성을 판단한다. 여 전무는 “여러 출신들이 집합돼 있다 보니 사업성에 대한 다양한 뷰가 있어 분석 능력이 좋은 편”이라며 “오후에는 대부분의 인원이 현장에 나가 직접 부동산 트렌드들을 살피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는 “강남역이 우리나라에서 큰 명소인데 신림동과 판교를 비교했을 때 거리로는 판교가 강남역에서 더 멀지만 교통망에 따라 사업성은 달라진다”며 “또 이미 비싸진 땅에 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도시와 떨어져 있지만 교통이나 환경 등을 봤을 때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사업성을 찾아 투자하다 보면 항상 수요는 생기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시재생·해외 부동산 컨스트럭션 론 등 계획 ‘국내 넘어 글로벌 1등 목표’ = 서울은 개발할 땅이 없고, 주택 개발도 힘들어지고 있다. 또 지방은 수익률이 떨어지



여은석 메리츠증권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전무).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여은석 메리츠증권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은...

1999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해 한국시티은행에 입사해 부동산 개발 업무를 맡았다. 2005년 한국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부 팀장을 거쳐 2007년 메리츠증권 프로젝트금융1팀장으로 합류했다. 2010년 상무로 승진한 여 전무는 2016년부터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2017년 전무가 됐다.

올 상반기 자금조달 규모만 3兆 독산동 우시장 개발後 사업성 고려 교통·환경 등 직접 살피며 종합 판단 3개 팀 뛰어난 분석 덕에 업계 1위

서울도 지방도 주택개발 어려워져 인천 주안 등 도시재생으로 눈 돌려 업무 노하우·자본력 바탕 해외진출 美·유럽 ‘컨스트럭션 론’ 검토도

거나 위험한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 전무가 눈을 돌린 것은 ‘도시재생’ 사업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인천 주안에 3500억 원을 들여 여성병원과 복합쇼핑몰, 주거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주거복합 개발을 진행했다.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를 옮기고 그 주위에 주거시설과 병원, 상업시설 등을 지어 도시재생을 이룬 것이다.

그는 인천 주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인구가 줄면서 단독 주택 부지의 초등학교가 학생 캐버리지가 줄어 문 닫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추세”라며 “이러한 학교들의 개발을 위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고 사람들이 주거지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반영해 아파트와 근린상가로 구성된 기존 주택을 넘어 학교, 문화, 레저, 병원, 상업시설 등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여 전무는 “도시재생에 주목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인구가 줄면서 주거 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서 추구하는 ‘청년 주택’ 같은 것도 도시 재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역 근처에 자투리 땅을 사서 하는 청년 주택은 금융 기관들이 단순히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인 임대아파트를 직접 소유해 안정적인 캐시 플로우(현금 유동성)를 만든 다음 개인들한테 상품을 공급한다”며 “예금 금리는 2% 이하이지만 이렇게 되면 6% 가까이 되다 보니 상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 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메리츠증권은 개발 투자를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까지 뻗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여 전무는 해외 컨스트럭션 론(건설비용 대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부동산 PF에 경력이 있는 직원들도 선발 중이다. 그는 “프로젝트 금융사업본부는 땅을 건물로 완성하는 투자를 하는데 해외는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들이 많다”며 “그렇다 보니 완성된 실물자산을 사는 것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컨스트럭션 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2년 동안 메리츠증권에서 숨 가쁘게 달려오며 회사를 부동산PF 업계 톱티어로 완성시킨 그의 향후 목표는 무엇일까. 여 전무는 프로젝트금융사업본부장으로서 목표에 대해 “국내에서는 부동산 PF로 볼 때 우리 본부가 업계 1위로 높은 포지션에 있다”며 “장기적 플랜으로는 해외까지 나아가 그간의 업무 노하우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부동산PF에서 글로벌 1등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오엔리 기자 yerin2837@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3분기 전체 가계의 사업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졌고, 감소폭은 2003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크다. 소득 하위 20%(1분위) 소득이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공적연금 등에 힘입어 늘어난 반면, 상위 20%(5분위)는 사업소득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들 간 소득격차는 4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다.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3분기 월평균 명목 소득은 487만6900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작년 3분기 증가율(4.6%)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다. 1분위 소득은 137만4000원으로 4.3%, 5분위는 980만200원으로 0.7% 증가했다.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이후 가장 높다.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

목은, 자영업자들이 소득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도 “소비 둔화와 설비 및 건설투자 감소로 업황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4·5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감소로 1·2분위로 내려앉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5분위에서는 줄고, 1·2분위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내수감퇴와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결과다. 고용시장 변화로도 나타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 8월 자영업자가 679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만2000명(0.9%)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1만6000명(7.0%)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가장 많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2.4%) 늘었다. 직원을 해고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빚을 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과 함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 몰락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라앉은 경기부터 살리지 않고는 자영업 회복과 분배지표 개선이 어렵다. 모든 정책이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영화로 보는 세상

비정성시(悲情城市)의 대만, 그리고 홍콩

아무리 명작이지만 30년 전 영화를 다시 꺼내 보기는 쉽지 않다. 세상은 볼 만한 혹은 봐야 할 작품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먼지 묻은 DVD 케이스를 열고 영화 한 편을 봐야만 했다. 연일 긴장되는 뉴스를 보내고 있는 홍콩의 소식을 들으면서 대륙과 섬 사이의 끈질긴 갈등과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역사의 기억이 다시금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듬하여 비정의 도시, 영화 ‘비정성시’다.

대만 뉴웨이브의 거장인 ‘후 사오시엔’이 영화 ‘비정성시’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때가 1989년. 대만에서 40여 년간의 계엄령이 해제된 해가 1987년이니 이른바 대만의 민주화가 막 시작될 즈음이었다. 영화는 2·28 사건을 배경으로 한 가족이 거대한 역사의 굴레에서 어떻게 상처받고 소멸되는가를 진중하게 다뤄내고 있다. 러닝타임만 무려 157분이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 랴오둥반도와 타이완(대만)을 일본에 할양한다. 그러나 일본은 서양의 견제로 랴오둥반도를 다시 토해냈고 대신 타이완에 일본총독부



를 두고 조선에서와 같은 식민통치를 자행한다. 그리고 1945년, 해방이 되자 타이완에 본토의 국민당이 해방군처럼 들어온다. 영화는 라디오에서 일제로부터 해방을 알리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시작하고 한 가족의 비극도 함께 시작한다. 원래부터 살고 있던 타이완의 원주민과 국민당을 등에 업고 들어온 외부인 간의 불협

화음은 상상을 초월했다. 극심한 부패와 무능의 국가권력은 사소한 반항과 저항에도 민감하다. 무려 3만 명의 내지인을 살해한 국민당의 만행은 이후 1999년에 이르러서야 대만총통의 사과로 일단락되었다. 국가권력으로 자행되는 수많은 폭력과 학살, 제노사이드는 남의 얘기만이 아니다. 우리 역시 4·3 제주, 10·17 여순, 한국전쟁, 5·18 광주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존재한다. 가파르게 전개되는 홍콩 시위가 시가전 형태를 띠면서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홍콩이 다시 ‘비정한 도시’가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SAMSUNG



아삭모드 | 해를 넘겨 먹는 김장김치도 오랫동안 아삭하게

김장김치를 위한 최적의 온도
 김치플러스 비스포크가 맞추다

해를 넘겨 먹는 김장김치도 초정온으로 오랫동안 아삭하게
 푸드마다 다른 신선함의 온도에서 당신의 스타일까지
 김치플러스 비스포크가 모두 맞춥니다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찬스 1. 삼성 김치플러스 BESPOKE 보상 혜택

2020년형 BESPOKE 4도어/3도어 & 3도어 홈바 해당모델 구입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11/30)

찬스 2. 으뜸효율 김치플러스 1등급 모델 구매고객 10% 환급

행사기간 동안 해당모델을 구매하시면
 1인당 구매금액 10%(신청자별 최대 20만원)를 환급해드립니다

• 세척은 구입하신 매장별 포인트 카서백 등 온라인 정보로 제공 • 포인트는 삼성전자 멤버십 고액에 한함 • 11월 혜택으로 연속 내용 및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구매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 한국에너지공단 • 행사기간: 2019. 11. 1 ~ 12. 31 • 적용기간: 시행일 2017. 7. 1 이후 1등급 모델에 한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http://rebate.energy.or.kr>) 또는 구매 매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상혜택과 2. 으뜸효율 구매고객 환급 혜택은 중복 가능합니다